



Contents



2023년 11월호 NOVEMBER 2023

🏠 bomnae.chuncheon.go.kr

📺 chuncheon.e

📺 chuncheonsi

📷 chuncheon_go

표지 설명

어쌍(Earthing) 춘천

일러스트 최진영



<봄내 맨발로>

양 손에 운동화를 한 짝씩 들고
꿈지락 꿈지락 발가락을 움직인다.
맨발을 내밀어 흙을 딛는다.
춘천을 걷는다.

MEET

- 04 **춘천은 지금**
맨발걷기에 빠진 사람들
당신의 정신건강, 안녕하십니까
- 14 **봄내인터뷰** 이유미 전시기획자
- 18 **시정뉴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 안전개선사업 추진 외
- 20 **캠페이지, 이것이 궁금하다!**

ENJ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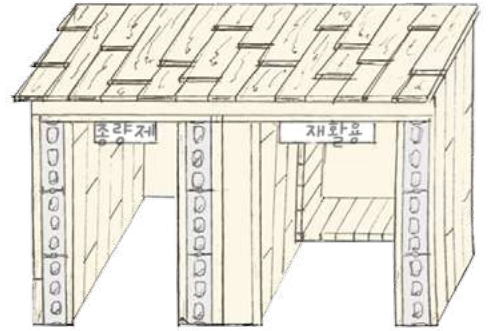
- 22 **봄내 한 컷** 80세 어머니의 옛날 김밥 외 3건
- 23 **축개업 대박나세요** 오늘버터 외 2건
- 24 **EDITOR'S PICK** 이달의 유튜브, 책 소개
- 26 **BOMNAE CULTURE** 이달의 문화생활 소개



04

춘천교육대학교에서 맨발걷기 중인 시민들

- 34 **지속가능한 삶** 폐자재 업사이클링, 공감건축협동조합
- 36 **궁금할지도** 춘천의 자전거길
- 38 **도란도란 춘천** 맡겨 놓은 카페를 아시나요? 외 2건
- 41 **우리가족 이야기** 유서현 가족 외



34 건축 폐자재 활용으로 만든 분리배출장

- 42 **최돈선의 돌레마을 이야기** 조면사의 비밀
- 46 **교실에서 보낸 편지** 1학년 아이의 살림 걱정
- 48 **예술가의 일상 수집 #11** '수험생 여러분'이었던 그 날



- 50 **의회소식** 제32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54 **행복나눔 후원릴레이 80호**
- 56 **봄내골소식** 춘천시 미담 사례 소개
- 62 **알림마당** 생활정보
- 66 **독자와 함께**
- 67 **만화로 보는 봄내 리뷰** 강원애니고 3학년 박채원

시정소식지 '봄내' 우편 구독 신청

읍·면지역은 봄내편집실(250-3229)로 구독 신청, 동 지역 아파트와 단독주택 세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다 와다다다~맨발의청춘

맨발 걷기에 바진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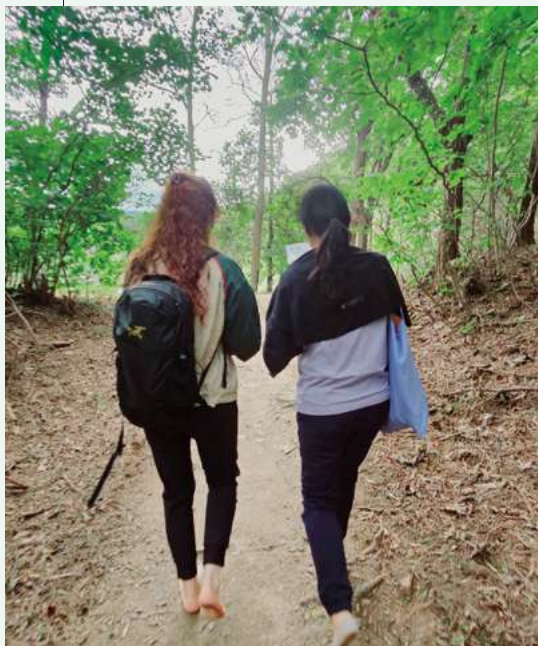


최근 춘천의 주요 등산로 곳곳에선 가지런히 놓인 신발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처음엔 이유를 몰라 어리둥절하지만 놀랄 필요는 없다. 신발 주인이 맨발 등산을 위해 벗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중장년층 사이에서 대유행인 맨발 걷기 열풍이 춘천에도 휘몰아치고 있다.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걸어본 사람은 없다는 맨발 걷기의 매력은 무엇일까. 궁금하면 일단 신발부터 벗어보자.

글 한수지 사진 윤현, 이윤섭 시민기자





안마산 등산로(위)와 애막골 산책로



등산로 곳곳에 신발이 놓여있는 까닭은?



‘어썩(EARTHING)’을 아십니까?

맨발로 산에 오르는 이들은 예전에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보는 이들은 ‘기인’이나 ‘특이한 사람’으로 바라봤다. 맨발 등산이 ‘유난스럽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등산화를 신더라도 충분히 운동이 되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 등산로에서 친근하게 신발을 벗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어떤 매력이 사람들의 신발을 벗게 했을까. 맨발 걷기는 어썩(Earthing)으로 불린다. 지구를 뜻하는 ‘Earth’와 유지한다는 ‘ing’의 합성어다. 땅과의 접촉으로 치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숲길이나 산책로를 맨발로 걸으며 땅의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7월 한 공영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된 후 인기가 크게 늘고 있다. 장소만 적당하면 비용도 들지 않고 신발만 벗어도 실행할 수 있어 건강을 중시하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열기가 뜨겁다.

제가 한 번 맨발로 걸어봤습니다.

13일 오전 9시 춘천교대 캠퍼스를 찾은 20여명의 시민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운동장 앞으로 모였다. 이들은 운동장 앞 사열대에 운동화를 벗은 뒤 줄을 맞춰 가지런히 정리했다. 이후 흙으로 이뤄진 운동장을 한발 한발 걸어 나갔다.

동호인들을 따라 신발을 벗고 운동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해방감이 밀려왔다. 백발 어르신은 “맨발로 걸으면 밤에 잠이 잘 와요”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매일 밤잠을 설치는 나로서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이날 춘천교대 운동장을 맨발로 거닌 이들은 맨발걷기운동본부 춘천시지회 회원들이다. 현재 320명의 회원이 걷기 좋은 장소를 공유하며 함께 활동하고 있다. 맨발 걷기 회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효과에 대해 늘어났다. 맨발 걷기로 활력을 찾은 사람들이 표정에는 건강한 자부심이 넘쳤다.



맨발걷기운동본부 춘천시지회 회원들이 춘천교대 운동장을 걷고 있다

김서원(60,지내리)씨는 “뇌경색을 앓았는데 후유증으로 눈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항상 뿌연 상태였다. 불을 켜나 안 켜나 안 보이는 매한가지라 밤에도 불을 끄고 살았는데, 지금은 선명하게 잘 보인다”고 했다.

이인호(74, 석사동)씨는 “허리협착증이 완화돼서 행복하다”며 맨발 걷기는 썰면, 썰식, 썰번! 3괘를 달성하게 해 주는 운동”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안마산을 찾았다. 전날 내린 비로 땅은 축축했다. 비 오는 날 접지*는 평소 마른 땅보다 3배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접지는 내 몸 안에 활성산소(양이온)를 땅에 주고 광물질인 흙에 생성된 음이온과 방사에너지를 내 몸이 흡수하는 효과다.

* 접지: 땅에 닿음. 또는 땅에 댐. 원래 인간은 맨발이었고, 흙을 밟으면서 진화해왔으나 신발이 생기면서 접지과정이 없어지고 말았다. 땅과의 접촉, 이를 통해 지구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어쌍의 본질이다.

입구에는 먼저 출발한 맨발러들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트래킹화를 벗은 뒤 나무 밑에 던져두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차가운 기운이 발바닥을 시작으로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숲의 청량한 기운을 오감으로 체감한 순간이다.

흙의 촉감을 느끼며 한 걸음씩 내디뎠다. 안마산은 황토가 많은 산이라 땅이 폭신했다. 발바닥은 금세 황토색으로 물들었다. 황토 한 숟가락에는 2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독소 제거 및 분해, 정화작용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웬지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었다.

잠시 후 샘터와 정상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왔다. 맨발 걷기를 하던 김희경(64, 석사동) 씨는 “평소에 몸이 잘 붓는 편인데 맨발 걷기 한 뒤로는 부종이 생기지 않는다”며 “신발을 신고 걷던 길을 신발을 벗었을 뿐인데 건강도, 마음가짐도 달라졌다”고 했다.

맨발로 걸을수록 산이 더 잘 느껴졌다. 밟히는 돌 하나하나의 크

기가 발바닥에 다 느껴진다. 평소 마사지를 좋아하는 덕분인지
아픔보다는 지압 되는 느낌이 컸다. 나무뿌리가 드러난 곳을 발
의 아치로 밟아 꺾꺾 눌러주니 시원함이 배가 됐다.

나무 사이로 별뿔*가 비쳐 발을 갓다 땀다. 태양의 포근한 기운
이 혈관을 타고 머리끝까지 퍼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맨발 걷기
는 내가 자연으로부터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흙과 직접 접촉하
여 '헌 집 주고 새집 다오'하는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교감 과정이었다.

* 별뿔: 작은 틈을 통하여 잠시 비치는 햇볕

플라시보 효과를 믿는 당신이라면

맨발 걷기의 기능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발바닥의 지압 기
능, 두 번째는 어싱(Earthing)이라는 접지 기능이다. 습관적인
두통이 사라졌다거나 만성피로, 불면과 우울증 개선, 피부가 매
끄럽고 혈압이 안정되었다거나, 심지어 암세포가 점점 줄어 사
라졌다거나 하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대부분 주관적인 얘기가
서 어디까지 사실인지 판단하긴 어렵다.

혈액순환에 좋고 면역력을 높인다 등 맨발 걷기의 이로움을 일



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맨발 걷기가 몸에 좋은 줄은 몸이 먼저
알아차린다. 좋아질 거라는 믿음과 기대 그리고 왜 좋아질지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한 논리가 버무려져 우리는 효과를 얻게 될
지도 모른다. 하루만 걸어도 꿀잠을 잘 수 있다고 하니 믿겨야
본전 아닌가. 맨발 걷기는 믿는 만큼 삶이 건강해지는 운동이다.
무엇보다 제대로 준비하고 걸어야 한다. 맨발로 걸으면 체중이
발목과 무릎 관절에 고스란히 집중되다 보니 통증이 생기거나
연골/인대 등이 손상될 수 있어서다. 등산이나 하산 시 특히 주
의해야 한다. 또 당뇨 환자들은 발에 상처나 물집이 생기면 합병
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리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을 것을 권유한다.

어썩썩, 봄내맨발로 조성

맨발 걷기가 인기를 끌면서 지원조례를 만든 자치단체만 전국
에 30여곳에 이른다. 춘천시도 10월 4일 맨발로 걷는 산책로
인 '봄내 맨발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봄내 맨발로는 맨발 걷
기의 춘천판 명칭이다. 우선 올해 공지천과 석사공원 두 곳에
서 맨발 길을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
간다는 계획이다. 시범 구간은 공지천 호반교~효자교(1.3km)
와 석사동 호반체육관 입구(0.2km) 인근이다. 추후 충혼공원
(0.5km), 우두공원(1.0km), 옛 캠프페이지 내 기후대응도시
숲(1.5km) 등 5개 길이 추가된다. 총 7.4km 구간으로 총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미경 맨발걷기운동본부 춘천지회장은 "교대운동장은 모래가
있어서 걷기 좋은 맨발 걷기의 성지이고 애막골 산책로 등 춘천
에도 접지할 수 있는 등산로가 있지만 안전하게 관리된 어썩길
이 필요했다"며 "봄내맨발로가 조성되면 더 많은 시민이 맨발
걷기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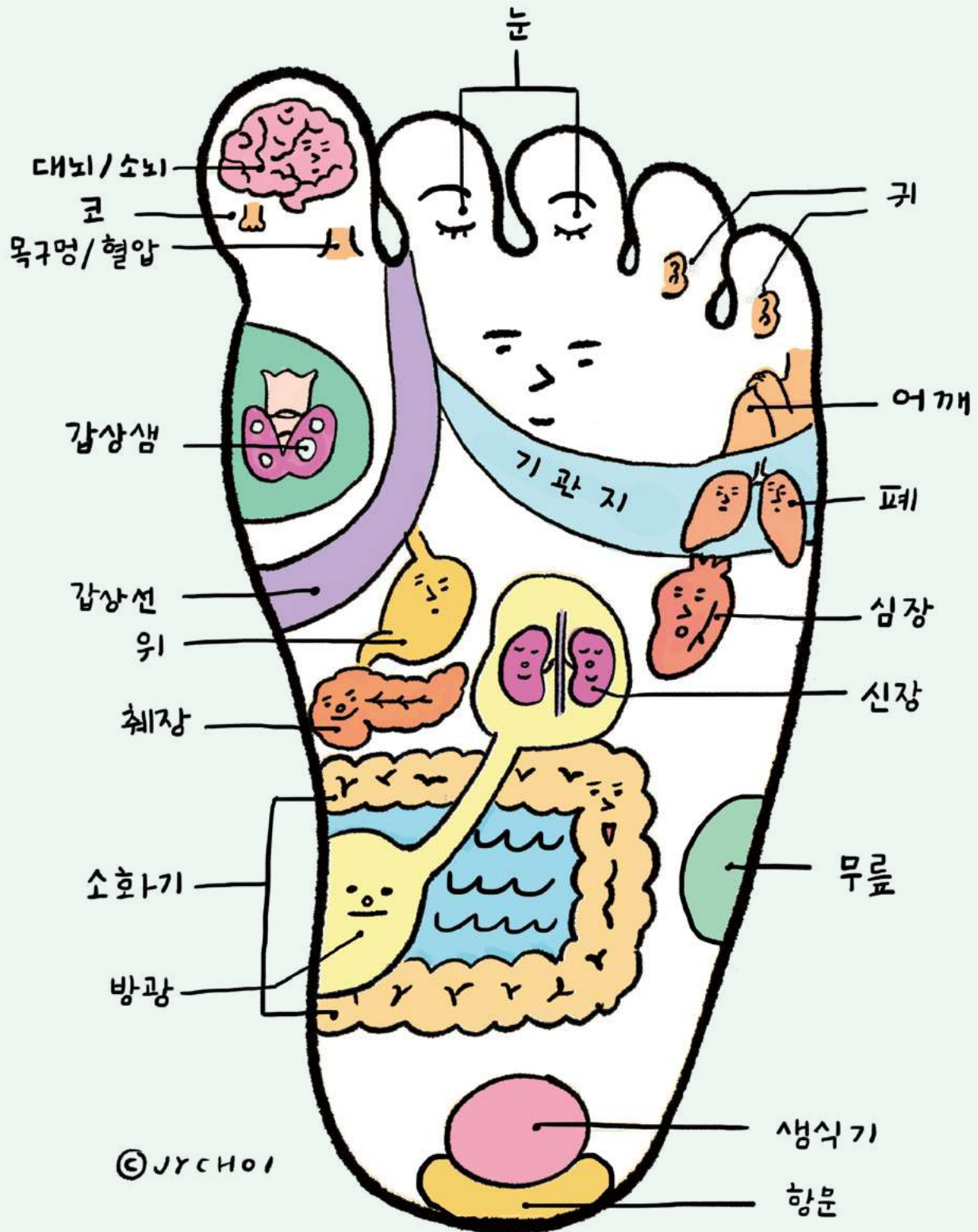
맨발 걷기는 하나의 트렌드이자 문화현상이 되고 있다. 내가 원
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맨발 걷기에 한
번 빠져보는 건 어떨까.®

공지산 황톳길에서 맨발걷기 중인 춘천 시민들



봄내 맨발로가 알려주는

발바닥, 인체의 축소판



• 지압점을 찾아 꼭 눌러봅시다.


 춘천은 지금

춘천시통합정신건강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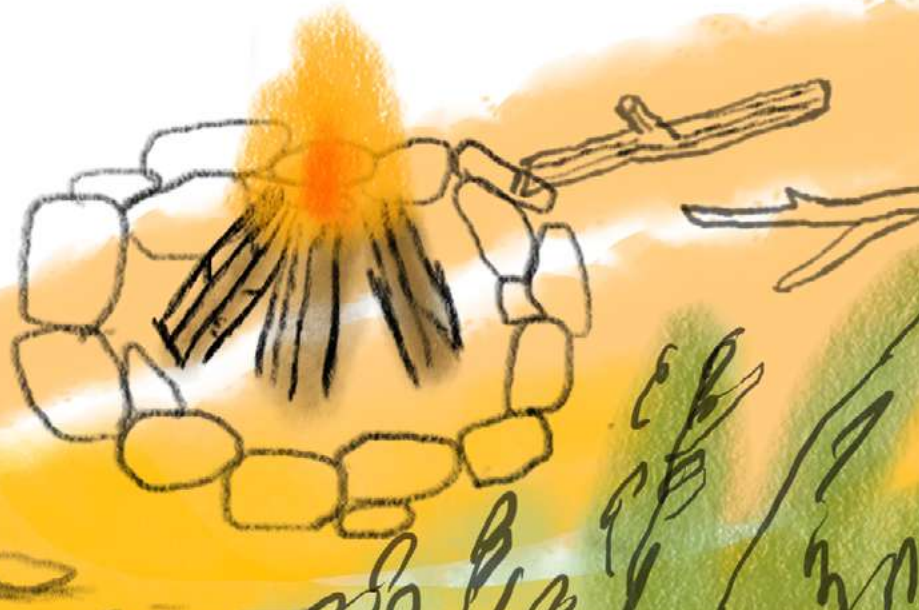
당신의 정신건강,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몸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는다. 그렇다면 '정신 건강'을 위해 노력하거나 실천하는 건 뭐가 있을까? 지난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다. 많은 사람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불편을 겪는 요즘, 춘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알아보고 내 정신건강도 한 번 돌아보자.

글 한혜진 그림 한선주

3명 중 2명,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표한 '2022 국민정신건강지식 및 태도 조사'를 보면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64%였다. 하지만 이 중 누군가와 상담하거나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7%뿐이었다. 왜 73%의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이유를 살펴보니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심각하지 않아 그냥 두면 나아질 것 같아서, 정신질환은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와 같은 이유였다. 정말 그럴까? 내 의지대로 극복할 수 있을까?



오해와 편견은 넣어둬, 넣어둬

그렇지 않다. 우울증은 스트레스가 누적되거나 다른 건강 문제로 뇌가 과부하를 받아 생기는 뇌 신경전달물질 분비 장애 문제다. 그래서 심한 우울감을 느낀다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입맛이 뚝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이 동반된다. 따라서 본인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우울증 증상을 경험하더라도 자책하거나 '네가 의지가 없어서 그래'라고 말하기보다는 전문의와 상담 치료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는 감정과 사고, 인식, 수면, 식욕 문제 등 뇌의 고등 정신 기능과 인간의 내면적 심리 문제를 다루는 의학 분야다. 불면증과 폭식, 거식증, 불안증, 우울증,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습장애, 기억력 문제 등 다양한 고민 해결을 위해 병원을 찾기 때문에, 몸이 불편할 때 병원에 가듯 마음이 불편할 때도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 심각한 스트레스,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감정 기록,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 등





춘천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춘천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 바로 춘천시통합정신건강센터다. 이곳에서는 정신질환과 각종 중독 관련 상담,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현병, 양극성 장애,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들과 가족들을 위한 주기적인 치료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으로 고통받는 중독자들의 회복도 돕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직접 찾아가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해 주고 상담해 주는 '마음안심버스'도 운영하고 있다. 센터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자가진단*이 가능하고 온라인상담 후 내소해 상담할 수도 있다. 춘천시통합정신건강센터는 춘천시보건소 별관 4~6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동안 분산됐던 정신건강 기관**들이 지난 9월 통합돼 보다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서비스가 이용 가능해졌다.

춘천시통합정신건강센터의 정신건강증진팀 한아름 팀장은 “우울이나 불안을 방치했을 때 질환이 악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행복한지, 수면 상태는 괜찮은지, 여러 평가 도구들을 활용해 내 상태를 스스로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편하게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자가진단 QR코드



정신건강



중독관리

**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봄내소식지가 추천하는 단계별 정신건강 가이드

1단계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관리하기

실천 1. 내 스트레스 알아차리기

스트레스는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로 몸과 마음이 불편해지는 상태다.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에 끼치는 부정적 감정과 신체적 증상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과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고 있는 것**이 관리의 첫걸음이다.

실천 2. 신체 긴장 풀어주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과 내장기관도 덩달아 긴장된다. **악해지고 예민해진 신체를 이완시키고 기분 좋은 자극을 더하면 한결 기분이 나아진 걸 느낄 수 있다.**
(예: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가벼운 산책 하기, 반신욕 하기, 스트레칭 하기, 명상하기, 좋아하는 운동 하기 등)

실천 3. '나'에게 집중하기

어떤 일을 할 때 **심장이 안정되고 호흡이 편해지는지 찾아서 온전히 쉬어보**자. 내 마음을 그냥 지나쳤던 순간이 있다면, 쉬면서 감정을 돌아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이었는지 알아차리고 되짚어 보자. '짜증' 났던 순간이 서운한 감정인지, 슬픈 감정인지, 화난 감정인지 내면에 집중해서 '나'를 알아가자.

2단계

우리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이용하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해소하는 걸로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혼자 관리하는 게 버겁다면 우리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자.** 상담이 필요한데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문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242-7574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55-3482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3단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치료받기

추천에는 **정신건강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병원**이 14개가 있다.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을 받고 싶다면 집 근처 병원에 문의해보자.

강원대학교병원 258-2000 / 국립춘천병원 260-3000
마음벗의원 255-0300 / 베드로병원 255-0085
맑은정신건강의학과의원 243-8900
봄내병원 255-8515
사랑정신건강의학과의원 257-0088
안정신건강의학과의원 244-8333
춘천마음숲정신건강의학과의원 256-0426
춘천서인병원 261-0999 / 춘천예현병원 264-9885
춘천정신건강의학과의원 264-0507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240-5000
함께하는정신건강의학과의원 261-1239

다 계획이 있는, 춘천으로의 여정

글 한혜진 사진 이경하 시민기자, 이유미 제공



지난 10월 10일, 이유미 씨가 전시기획자로 참여한 <우안 매화전>이 열리고 있는 춘천문화예술회관 계단에서.

짧을 줄 알았던 이유미 씨의 타국살이는 12년 돼서야 끝났다. 해외 통신원으로 뉴스를 전하던 삶은 춘천에서 전시기획자로 새롭게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인생이 예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돌아보면 마치 계획된 삶의 여정처럼 보인다. 떠난다는 것 그리고 돌아온다는 것, 그 어떤 결정에도 조금의 아쉬움이 묻어나지 않는다. 지치지 않는 이유미 씨의 '춘천으로의 여정'을 들여다봤다.

이유미

전시기획자. 1981년생 춘천 출신. 연세대학교에서 국어국문/신문방송 학사 과정을 마치고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PD로 일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YTN, KBS의 해외 통신원으로 일하며 10여 년 살다가, 2년 전 한국에 돌아왔다. 15살 중학생 아들, 13살 초등학생 아들, 6살 유치원생 딸, 3살 어린이집원생 아들을 둔 아이 넷의 엄마이자 유튜버, 전시기획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중.



갑.분.사. 갑자기 분위기 사우디아라비아

이유미 씨는 서울 소재의 외고로 진학하면서 고향인 춘천을 떠나게 됐다. 국어국문학, 신문방송학을 공부하면서는 우리말의 매력과 방송을 만드는 일에 빠져 라디오 PD가 됐다. 방송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섭외하고, 노래를 선곡하고,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일이 행복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는데 남편은 어릴 적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로 이민 간 교민이었다.

“남편이 사우디에 있다가 잠깐 한국에 머물 때 저를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결혼하고는 같이 사우디에 가서 살자고 설득했어요. 사우디의 수도인 리야드에 한국학교가 있어서 선생님도 할 수도 있고, PD로 일했으니 사우디의 국영방송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를 설득했죠. 그래서 처음엔 1~2년만 살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이 씨는 결혼 1년 후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2009년, 태어난 지 두 달이 된 아들과 사우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어떤 환경에서도 케자리를 찾아가는 사람

사우디는 나라의 80%가 사막이라 건조하고 일 년 내내 더운 데다가, 여성은 ‘아바야’라는 전통 의상으로 몸과 얼굴을 가려야 했기에 낯설고 제약이 많은 환경이었다. 하지만 탄탄한 교민 사회 덕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는데,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건너갔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지은 건물과 도로는 튼튼하다’는 신뢰감에 한류 열풍이 더해져 어딜 가나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호의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전통의상을 입은 이유미 씨 가족
(막내가 태어나기 전)



이유미 씨의 라디오 PD 시절

* 리야드 한국학교: 1970년대 후반부터 중동 지역의 건설, 사회 인프라 활성화에 힘입어 한국인 인력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체류민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

이유미 씨는 리야드 한국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기도 하고 YTN와 KBS의 해외 통신원으로도 일하며 차차 적응해 나갔다. 또 차분하고 안정적인 목소리의 장점을 살려 아이 동화책 읽어주는 영상, 피아노 반주 강의 영상 등을 꾸준히 유튜브(채널명: 차근차근TV)에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친정엄마에게 오이 소박이 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기록용으로 영상을 올렸지만,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 지금은 1만 명이 넘었다. 일, 취미, 육아 모두 그만의 속도로 정성을 다해 빚어갔다. 그러던 중, 다시 여정을 떠날 일이 생겼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동에 제한이 생겼고 아이들은 1년 동안 학교에 갈 수 없었다. 결국 2021년 한국으로, 춘천으로 돌아왔다.

25년 만에 돌아온 고향, 춘천에서

사우디는 금지된 것이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유미 씨에게 춘천은 존재만으로 반짝반짝 빛났다. 고개만 돌리면 강과 산이 늘 보이고, 문화예술로 가득 찬 춘천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넘쳤다. 넷째 막내가 어린이집에 가면서 이 씨는 배우고 싶은 일을 찾기 시작했다. 지난해 춘천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전시기획자 양성사업을 접하면서 '이거다!' 싶은 느낌을 받았다. 6개월간 이론, 실무 수업을 듣고 실습까지 하는 과정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고, 적성에도 맞았다고.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춘천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것들을 전시로 담아내는 연습을 할 수 있었다. 올해 2월 전시기획자로서 참여한 첫 번째 전시는 춘천 수물민의 '잠겨버린 그리움'으로 가장 특별했다.

"소양강댐 자료를 찾다 보니 올해가 완공된 지 50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댐이 생기면서 고향이 물속에 잠겨버린 수물민들은 고향을 매일 그리워하지만, 삶이 치열했기에 그리움을 마음속에 잠고 분주히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수물민의 이야기를 담은 문학 작가의 소설, 소양강변의 담은 사진, 수물민이었던 화가의 그림까지



전시로 관람할 수 있게 준비했었어요. 실제 전시 기간에 추전초등학교를 졸업한 어르신들이 오셔서 장소에 대한 추억을 들려주셨고, 옛날 사진도 보여주셨어요. 마음이 울컥하면서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요.”

춘천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요

춘천에 돌아온 가장 큰 이유에는 부모님이 있다. 모든 일을 응원해 주고 아이 키우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부모님이 없으면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힘이 되면서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기도 하다. “춘천에 친척들이 있기도 하고, 부모님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춘천에서 어르신을 만나면, 아빠가 아는 분일 수도 있고, 할머니가 아는 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춘천사람은 다 가족 같아요.”

지난 10월로 이유미 씨가 기획한 전시 3개가 끝났다. 이 씨는 이 전시들이 춘천에서 열리는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춘천의 예술가와 춘천의 이야기가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 바람이 꼭 이뤄지기를 응원하고 지지한다. “인물 한명 한명이 콘텐츠가 되고 나중에 춘천의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춘천을 중심에 두고 춘천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요.”⁸⁾



이유미 씨의 사랑스러운 네 자녀
강준호, 강민호, 강단비, 강수호

문 열다가 '랑'...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추진

춘천시, 올해 4억원 투입해 보행자·자전거 도로 재배치

상가와 주택 측에 있는 자전거도로의 위치를 차도 측으로 바꾸는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춘천시는 올해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 지역 안전개선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 지역 안전개선사업은 건물 측에 배치된 자전거도로를 차도측으로 옮기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건물 전·출입 보행자와 자전거 충돌사고를 예방하고 노후 된 자전거도로 및 인도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위치는 거두사거리부터 스무숲사거리까지며, 거리는 450m다. 특히 시는 해당 사업을 2038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상가 및 건물 측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올해 기준 61개소다. 이를 연차적으로 2024년부터 2028



년까지 17개소, 2029년부터 2033년까지 25개소, 2034년부터 2038년까지 19개소를 개선할 방침이다.

도로과 ☎250-4271

제41회 춘천시민상 선정

문화예술, 사회봉사, 체육진흥, 농가소득 등 6개 분야



제41회 춘천시민상이 확정됐다.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시민상 공적심사위원회는 춘천시민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춘천시민상은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화합에 헌신하고 있는 숨은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시상 부문은 ▲문화예술 ▲사회봉사 ▲체육진흥 ▲가화효친 ▲농가소득 ▲장애인 ▲산업경제 7개다. 올해 주인공은 ▲이형재 작가(문화예술) ▲김철희 웅달샘맑은물봉사단장(사회봉사) ▲김명식 춘천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허브 전무이사(체육진흥) ▲이장식 산수1리 이장(농가소득), ▲조정연 삼천리자전거 대표(장애인) ▲강연술 춘천시민버스 및 영서로지스틱스 대표이사(산업경제) 가화효친 부문은 추천자가 없어 별도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제41회 춘천시민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8일 제21회 춘천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할 예정이다.

총무과 ☎250-4277

'도서관 책, 우리 집으로 날아왔다'...책나래 홍보

장애인 도서관 자료 무료 택배 서비스



춘천시립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자료 무료 택배 서비스인 '책나래'를 알리고 있다. '책나래'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도서관 자료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무료로 집에서 대출,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책나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나의 도서관 등록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시립도서관, 시립청소년도서관, 신사우도서관, 남산도서관의 자료 6권을 총 30일 동안 대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립도서관은 2021년부터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북스타트 꾸러미 도서를 택배로 집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립도서관 자료실은 장애인의 독서를 돕기 위한 7종의 다양한 독서 보조기기와 큰 글자 도서, 오디오북 등을 소장하고 있다.

시립도서관 ☎245-5060

춘천시 종량제봉투 색 바뀐다

소각용 봉투 주황색 색상 변경, 소형봉투 신규 제작 공급

춘천시가 지난 10월부터 새롭게 바뀐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다. 종량제봉투 전면 개편은 종량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먼저 배출 금지 항목을 그림으로 시각화해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종량제봉투는 글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생활폐기물 배출 요령에 대한 신속한 정보전달이 어려웠지만,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영문설명을 함께 표기해 외국인도 종량제봉투 사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종량제봉투 중 소각용 봉투의 색깔을 흰색에서 주황색으로 변경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용량 재사용 봉투를 새롭게 만들었다. 소용량 봉투는 현재 10리터와 20리터가 사용되고 있지만 5리터를 추가했다. 5리터 재사용 봉투는 일반봉투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유용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일반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용량이 작은 5리터 재사용 봉투 사용이 더욱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변경된 종량제봉투는 판매처의 상황에 따라 기존 봉투의 재고 소진 시부터 소매점에 공급될 전망이다.

자원순환과 ☎250-3127

꼬불꼬불한 남면 관천리 도로 왕복 2차로로...

도로확포장사업, 한강유역환경청 우수주민 특별지원사업 선정



남면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남면 관천리 진입도로 도로확포장사업이 마침내 추진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한강유역환경청 2024년도 우수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으며 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20억 원을 확보해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 2024~2026년까지 3년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산악지형인 여건 탓에 대부분 구간이 급커브, 비탈 사면이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잦은 곳으로 남면 관천리~가정리간 군도 5호선을 확장하며 규모는 6.5km로 왕복 2차로이다. 해당 도로의 폭은 기존 5.5m이었지만 이를 7.5m로 넓히고 포장 공사도 함께한다.

도로과 ☎250-3160

춘천시 기업 유치 성사...55억 원 투자협약 체결

남춘천산단 내 사업부지 12,000㎡, 신규고용 등 경제효과 창출



춘천시가 55억 원 규모의 기업 유치를 성사했다. 시는 강원특별자치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주)서안프로텍(대표 배기환)과 자동차용 광택제 생산 공장 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춘천산업단지 내에 2024년까지 55억 원을 투자, 사업부지 약 1만2,000㎡에 건축 전체 면적 3,300㎡ 규모의 공장시설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10명의 신규고용 등 경제효과와 창출이 기대된다. (주)서안프로텍은 자동차용 광택제 및 연마제를 개발·생산하는 자동차 관리 용품 전문기업이며 고가의 수입 제품 위주의 시장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 요구에 적합한 고품질의 가성비 높은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투자유치과 ☎250-4146



캠프페이지 현황과 활용방안 Q&A

질문 캠프페이지는 언제 춘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나요.

2005년 미군기지 폐쇄 후 2016년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으나, 활용가치가 대단히 큰 대규모 유휴부지로 재원확보 등 심도있는 개발방안이 필요하였기에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었습니다.

질문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공원)이 최선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변지역이 쇠퇴하고 있는 것도 캠프페이지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이 아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공원으로도 조성됩니다.

질문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무엇인가요.

쇠퇴하는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이 집적된 공공주도의 대단위 거점조성사업이며, 참고로 정부가 지정하는 구역을 국가시범지구라고 합니다.

질문 춘천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산업, 상업, 주거, 공원 등이 고루 갖춰진 계획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K-콘텐츠 및 첨단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산업유치를 위해 안정적인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주거대책도 추진됩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넘어 도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질문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출자, 융자)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질문 **미군공여지 반환 구역 개발사례가 있나요.**

강원·경기도만 해도 24개의 사례가 있으며, 22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대부분 산업, 교육 연구, 상업 기능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주 캠프롱의 경우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하지만, 국립과학관, 미술관, 수영장 등 복합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개발로 인해 매장문화재는 훼손되지 않나요.**

현재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층부 발굴조사 후 중·하층 발굴조사, 보존 또는 개발 계획에 대해 문화재청의 심의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여러 검토 단계를 거치는 사업으로, 착공 전까지 문화재 발굴결과를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질문 **시민의견 수렴 등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으로 실현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는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시민분들과 의회 의견을 들어 내년 상반기에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요즘 어싱(Earthing), 즉 맨발걷기가 대세! @이혜련

저는 3년 전부터 안마산에서 맨발 걷기를 해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맨발로 걷는 저를 다들 신기하게 쳐다봤었는데 요즘은 안마산 초입에 벗어놓은 신발이 기본 서너 켤레는 있네요.



꽃보다도 예쁜 손녀들과 함께... @김창연

높은 하늘엔 흰 구름이, 집 근처에는 코스모스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 앞에서 꽃보다도 예쁜 손녀들과 사진 찍었습니다. 아이들의 빛나는 눈동자와 해맑은 미소는 값진 보석입니다.

패들보트 위 멋진 전경 @신지혜

호반의 도시 춘천! 다양한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어 너무 멋져요! 패들보트 위에서 바라보는 멋진 전경은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입니다.



Photo of 2023 봄내 한컷

춘천시의 이슈나 감상을 사진으로 남겨주세요.



80세 어머니의 옛날 김밥 @윤미영

어릴 적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이 먹고 싶다는 딸의 말 한마디에 80세를 바라보는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옛날 김밥입니다. 눈물나게 맛있는 김밥입니다.



1

오늘버터

주소 | 충혼길44번길 15 연락처 | 0507-1484-9313

인스타그램 | @onuel_butter

춘천의 유일한 에플레어 전문점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에플레어에는 엘르앤비르 버터를, 마들렌에는 이즈니 고메버터를 사용합니다. 직접 만드는 다양한 종류의 크림과 버터의 풍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신메뉴 라인업은 인스타그램에 올라갑니다.



2

힐링숲

주소 | 서면 박사로 894 (강원연구원 맞은편)

연락처 | 070-4915-3528

힐링숲에서는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고주파 발 체온기 무료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 난청 케어 상담도 가능합니다. 건강을 찾아 서면으로 드라이브 오세요.

New of 2023 축 개업 대박나세요

3

어울리다 플라워

주소 | 성심로 26-1 연락처 | 0507-1358-9266

인스타그램 | @harmony_flower__

당신에게 어울리는 꽃과 아름다움을 드립니다. 꽃을 통해 선물을 하는 사람, 선물을 받는 사람 모두가 어울리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EDITOR'S PICK

봄내 소식지에서 소개하는 유튜브 콘텐츠! 무미건조한 하루의 끝을 싱긋거리게 만드는 영상을 모아 소개합니다.

에디터 한혜진

1년 차 공무원 인터뷰 Hi영이 간다



이번 'Hi영이 간다' 콘텐츠에서는 춘천시청의 따끈따끈한 1년 차 신규 공무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당시 첫 월급으로 뭘 했는지, 직장 적응은 했는지 등의 근황 토크를 시작으로 밸런스 게임이 이어진다. '피, 땀, 눈물 흘려가며 만든 제안서, 선배 이름으로 제출하기 vs 저장하지 않은 상태로 컴퓨터 종료하기', '불편한 상사와 점심마다 소고기 먹기 vs 편한 동료들과 컵라면만 먹기' 등과 같은 극단적 예시에서 한 가지를 꼭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신규 공무원들의 대답이 흥미롭다. 이외에 후배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꿀팁도 들을 수 있다.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자!

채널명: 춘천시



#신규공무원 인터뷰 #따끈따끈

COMMONZ IMPACT 2023 커먼즈필드 춘천 파트너 소개



춘천 커먼즈필드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궁금했다면? 주목! 지역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10개의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해 본 커먼즈 임팩트 인터뷰 공개! 협동조합 강원피스투어, 오늘 잇다, 안녕하는 사이, 비영리스타트업 느린소리, 비영리스타트업 나풀나풀, 감자아일랜드, 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호호방문진료센터, 춘천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주식회사 달봄의 이야기를 맛보기로 볼 수 있다. 각 단체의 전체 인터뷰 영상은 해당 채널에 모두 올라와 있다. 각자 주목하는 사회 문제와 해결 방식을 들어보는 재미가 있다. 독창적인 방식으로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혁신적인 주체들을 유튜브로 만나보자!

채널명: 커먼즈필드 TV



#소중한 파트너 #커먼즈필드 입주기업

'댐을 열면 서울은 끝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1984년 서울, 도시가 물에 잠겼다. 잠겨버린 건물들과 고립된 사람들. 그런데 이때, 서울의 운명을 쥐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소양강댐이었다? 댐의 수문을 열 수도, 열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모두가 목숨을 걸고 고군분투했던 그날의 이야기" 지난 10월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에서는 사력댐 중 세계 다섯 번째로 큰 소양강댐을 중심으로 1984년 홍수로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려준다. 그 외에 소양강댐의 건설 배경과 이 사건을 계기로 이후 바뀌게 된 것들도 함께 짚어본다.

채널명: 달리 [SBS DA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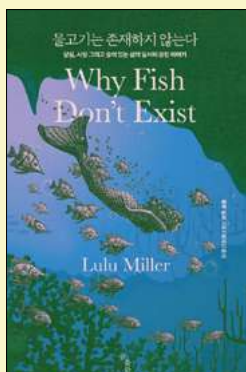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소양강댐

EDITOR'S PICK

쏟아지는 책들 속에 선택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깊이있는 책읽기, 봄내와 함께 해요.

에디터 한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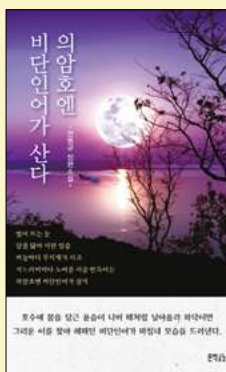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글 롤루 밀러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세계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물고기는(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관해 우리의 관념을 뒤집어엎으며 자유분방한 여정을 그려나간다. 사랑을 잃고 삶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데이비드 스탠 조던'을 우연히 알게 된 저자는 그가 혼돈에 맞서 싸우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에 매혹되어 그의 삶을 추적해나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조던의 이야기는 독자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이끌며, 이윽고 엄청난 충격으로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든다. 롤루 밀러가 친밀하면서도 독특한 방식으로 들려주는 이 책은 과학에 관한 고군분투이자 사랑과 상실, 혼돈에 관한 이야기다. 나아가 신념이 어떻게 우리를 지탱해주며, 동시에 그 신념이 어떻게 유해한 것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이 책 속 의문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나가다 보면 여러분도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더 깊고 더 특별한 인생의 비밀 한 가지와 만나게 될 것이다.

출판사 창비 금액 1만7,000원



의암호엔 비단잉어가 산다

글 안병규

‘나’의 이웃으로 이사 온 시인의 아들 일곱 살 꼬마명일은 의암호에서 비단잉어를 목격했다고 말한다. ‘나’는 어린아이의 허무맹랑한 소리라 여긴다. 그러거나 말거나 인어의 존재를 피력하던 명일은 어느 날 마을을 떠난다. 몇 해가 지나 의암호로 돌아온 명일에게서는 예전의 명민함을 찾아볼 수 없다. 두문불출하던 명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밖으로 나와 호수를 바라본다. 노을 색으로 물든 호수를 바라보는 명일이 바라는 것은 딱 하나, 비단잉어를 다시 만나는 것이다. 이 책은 첫 장부터 작가의 문학적 감수성과 거침없이 풀어내는 입담이 압권이다. 특히 안병규 작가 특유의 묘사력은 책장을 넘길수록 빠져들게 하는 마력이 있다. 이 작가의 삶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모두가 문학처럼 느껴진다. 문장으로 풀어내는 힘 또한 상당히 세련되어 있으면서도 화려하다. 『의암호엔 비단잉어가 산다』는 읽는 즉시 의암호로 달려가고픈 충동을 느끼게 할 것이다.

출판사 문학공감 금액 1만5,000원



조상의 얼 톺아보기

글 장희자

국립춘천박물관에서 19년간 전시실 설명봉사를 이어온 장희자 수필가의 책이 발간됐다. 작가에게 유물은 조상의 생활상을 잡작하는 또 다른 언어다. 창령사 오백나한의 주름에서 사람의 일생과 마음을 본다. 해맑은 아이의 모습과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도 겹쳐진다. 비우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진 작가는 “세계 어디에 내놓고 자랑하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소박한 강원도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고 유물을 소개한다. 박물관에서 해결되지 않는 궁금종과 답답함이 있었다면 이 책은 좋은 역사 친구가 되어줄 것 같다. 문화재 속에는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의 생각과 예술성, 정서, 환경 등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모든 전시실 안에는 사람의 숨결과 생각이 담겨있다고 말하는 책. 애정어린 시선으로 담담히 적은 문화재 이야기가 옛 사람들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줄 것이다.

출판사 소금북 금액 1만5,000원

BOMNAE CULTURE

이달의 공연·전시를 소개합니다.



2023 춘천 토이페스티벌 축제

어린이와 어른이가 함께하는 춘천 토이페스티벌이 11월 11일, 12일 이틀간 서면 애니메이션 박물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날씨를 고려하여 무료담요, 핫팩, 돗자리 등이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과학마술 콘서트, 관객참여형 교육 뮤지컬, 유명 크리에이터 토크 콘서트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 장난감 전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푸드존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음식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11.11.(토)~12.(일) **문의** 250-3068
장소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 일원

춘천 예술교육 상상력 주간 축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미래 문화예술교육 축제가 11월 마지막 주 춘천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챗GPT를 비롯해 다양한 생성형 AI 체험과 교육, 나만의 결과물을 만드는 창작 워크숍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AI와 교육을 주제로 펼쳐지는 전문가 특강과 체험 전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어렵지만 했던 AI와 친구가 되보는건 어떨까요?

일시 11.23.(목)~28.(화) **문의** 259-5432
장소 옛춘천교육지원청(약사동2-2), 옥림고개 인근

2023 춘천연극제 고맙데이 공연

춘천연극제를 찾아주신 관객, 공연자, 스태프에게 진심을 담아 전하는 감사의 날 다채로운 야외공연 시각예술, 포럼, 춘천시민들이 함께하는 폐막 공연까지 봄내극장에서 최고의 하루를 즐겨보세요. 춘천연극제 아카데미에서 시작된 춘천시민극단 봄내의 <모텔판문점> 공연이 2023 대한민국 시민연극제 대상 수상 앵콜 공연 <모텔판문점>도 함께합니다.

*세부공연 일정은 춘천연극제 홈페이지 참고

일시 10.28.(금) 11시~17시
문의 259-5822 **장소** 봄내극장 및 주차장 등



FESTA NYCC 2023 공연

춘천시 명예홍보대사 뉴욕의 음악쟁이들, 11년의 여정. 천년술길, 세계적 문화유산! 음악의 향기, 세계로 미래로

-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은 조선 마지막 궁궐 춘천 이궁 "봉황마을" 부활로! 춘천 클래식 커피 칸타타
*Academy NYCC Young Artist 프로젝트 마스터클래스 & 협연: 10.26.(목) 19시, 교동·소양동 도시재생 커뮤니티 돌봄센터 2F

- 청평사 창건 1050년! "천년고려정원 청평사" 세계로 미래로: 10.28.(토) 19시, 춘천문화예술회관

- 대한민국 위대한 문화유산 110년만의 귀향,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 환지본처 기념! 그래미 어워드 수상자 네이트 슈램의 "월정사 랩소디 I, II": 세계초연 10.29.(일) 14시, 오대산월정사 대법륜전

※ 콘서트 실황 영상은 11. 11.(토) ~ 11. 25.(토)
매주 토요일 11시 유튜브 공개

일시 10.23.(월) ~ 11. 25.(토)
문의 010-2755-1353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외

BOMNAE CULTURE

이달의 공연·전시를 소개합니다.



창작 판소리

공연

<의암 류인석 일대기> 완창

조선 후기 춘천의 대표적인 의병장 '류인석'의 일대기를 그린 창작 판소리 공연입니다. 의암 류인석 선생은 1908년 연해주로 망명하신 후 안중근의 거사를 돕고 연해주 망명 정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현재 춘천 남면의 '의암류인석기념관'에서는 류인석의 삶과 독립 정신을 알리고자 일대기 창작 판소리 형식으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뜻있는 춘천시민을 모시고 귀중한 공연을 마련하여 류인석 선생을 추모하고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출연자: 박양순 명창(소리), 이형재 화백(사회 및 붓 퍼포먼스), 송원조(고수), 춤추다추임(무용), 이목(모듬북)

- 관람료: 무료(오후 2시부터 선착순)

-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

일시 11.4.(토) 15시 문의 264-3980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달콤한 잠

공연

(A Sweet Slumber)

베리어프리 공연 '달콤한 잠'은 기억, 정육면체, 그리고 달콤한 잠으로 구성된 베리어프리 공연입니다. 세 작품을 통해 현대인들이 받아들이는 변형된 기억의 조각, 스스로를 움아매는 마음, 그리고 또 다른 마음들의 움직임을 언어, 소리의 충돌, 움직임의 연상 작용을 통해 지금의 '나'는 어떤 생각들로 24시간을 움직이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짧지만 달콤한 잠의 공간과 시간으로 관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베리어프리(barrier-free):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인 장애물, 심리적 벽 등을 제거하는 운동 및 정책

- 관람료: 무료(선착순, 예약 필수)

일시 11.17.(금) 19시30분 11.18.(토) 15시

문의 010-6377-0324 장소 축제극장 몸짓



춘천시립교향악단

공연

제170회 정기연주회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피아니스트 강우성의 협연 연주로, 세심하고 세련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23번 가장조'를 선보입니다. 더불어, 가을 분위기에 어울리는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제2번 마단조'를 연주하여 관객들에게 음악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풍부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 관람료: 전석 1만원(춘천시민 30% 할인 등)

-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

일시 11.17.(금) 19시30분

문의 259-5879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BOMNAE CULTURE

이달의 공연·전시를 소개합니다.



락밴드 콘서트

공연

<작전명-청춘>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음악을 젊은 감각으로 해석하여 청춘의 활기찬 에너지와 열정을 선보입니다. 국립춘천박물관 11월 문화가 있는 날 플러스 문화행사 락밴드 콘서트 <작전명-청춘>과 함께 뜨거운 젊은 날을 만끽하세요!

- 6세 이하 보호자 동반 입장 필수

일시 11.18.(토) 19시

문의 260-1555 장소 국립춘천박물관 강당



창극 <내 이름은 사방지>

공연

'내 이름은 사방지'는 사내인 동시에 계집이었던, 조선시대 실존 인물 '사방지'의 파란만장한 삶을 판소리로 녹여낸 창극입니다. 권력과 차별, 젠더를 파고드는 파격적인 스토리텔링과 기존 판소리 문법을 과감히 깨부수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음악, 눈부신 시어와 판소리 가락이 폭발하듯 몰아쳐 빚어내는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사방지 역할에는 김수인, 홍백가 역에는 박애리, 화쟁선비 역에는 유태평양 등 유명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 관람연령: 중학생 이상 관람가

일시 11.21.(화)~22.(수) 19시30분

문의 259-5822~4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춘천시립합창단 제117회

공연

정기연주회

<슈베르트-겨울나그네>

이번 정기연주회는 계절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고품격 클래식 합창 공연으로, Franz Peter Schubert의 '겨울의 여행 D. 911'과 슈베르트의 3대 가곡 중 '겨울나그네'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계절의 정취를 아름답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 관람료: 전석 1만원(춘천시민 30% 할인 등)

- 관람연령: 7세 이상 관람 가능

일시 11.24.(금) 19시30분

문의 259-5874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BOMNAE CULTURE

이달의 공연·전시를 소개합니다.



춘천시립인형극단 제4회 정기공연 '롯데의 바이올린'

공연

춘천시립인형극단 제4회 정기공연 '롯데의 바이올린'은 안톤 체호프의 명작 '롯데의 바이올린'을 독창적인 연출과 예술적 표현을 통해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 아내의 죽음을 통해 삶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삶과 죽음, 젊음과 노화, 대립과 조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색채와 화법으로 표현하여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생각을 전달하며 명작의 아름다움과 체호프의 예술적 역량을 경험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관람료: 전석 1만원(춘천시민 30% 할인 등)
- 관람연령: 7세 이상 관람 가능

일시 11.25.(토) 16시, 19시 / 11.26.(일) 16시
문의 070-4633-5746 장소 봄내극장



춘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27회 정기연주회

공연

춘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제27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로맨틱 판타지'의 매력적인 시간을 선사합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 음악가들이 차이코프스키의 명작들을 통해 그 무한한 감성과 열정을 표현합니다. '스페이드 여왕',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와 같은 음악적 걸작들을 청소년 음악가들의 독창적이고 섬세한 해석으로 새롭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관람연령: 7세 이상 관람 가능

일시 11.26.(일) 17시
문의 259-5879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볼라레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Last Chopin'>

공연

섬세한 감성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음색과 강렬하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동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미 유럽 등 세계무대에서도 명성을 떨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따뜻한 감성과 논리적인 해석으로 청중을 사로잡을 연주를 펼칩니다.

- 관람료: 전석 3만원
-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관람 가능

일시 11.28.(화) 19시30분
문의 259-5822~4 장소 축제극장 몸짓

이달의 공연·전시를 소개합니다.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마음으로 쓰는 글씨〉

공연

11월 문화가 있는 날 <마음을 담은 글씨>를 통해 심금을 울리는 가야금 소리와 한국무용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일상에서 쉽게 쓰는 글씨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알게 되는 순간 글씨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한글의 다채로운 매력과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 흠뻑 빠져보세요!

*6세 이하 보호자 동반 입장 필수

일시 11.29.(수) 17시, 19시 문의 260-1555
장소 국립춘천박물관 강당



연극 <땡별: 길을 잃다>

공연

처연히 연주하는 콘트라베이스 선율 속, 과거와 현재, 꿈결 같은 환상과 기억의 파편들 속에서 담담하게 펼쳐지는 삶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김유정 프로젝트의 마지막 신작 관람하러 오세요.

- 관람료: 3만원(춘천시민 40%, 예술인패스 소지자 30%, 아트팩토리 봄 공연 티켓 소지 할인 60% 등 다양한 할인)

- 관람연령: 13세 이상 관람 가능



일시 10.20.(금)~11.12.(일) 금 19시30분 / 주말 14시
문의 263-7222 장소 아트팩토리 봄



에코아트페어 제로섬씽 2023 <Life 삶 Life 생활>

전시

인류가 지구에 퇴적해온 오만과 오류가 곧 인간이 지구에서 퇴출당할지도 모르는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미 살아온 인간과 앞으로 살아야 할 인간들에게 이 거대한 위기는 더 이상 뿌연 안개가 아닙니다. 외면할 수 없는 펄펄 끓는 삶이자 그 위에 발 디디야 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예술가는 삶 속에서 전례 없는 격변의 자연을 목격하며 그들이 자연과 공존하는 생활을 선보입니다. 관객에게 늦지 않은 실천의 촉매가 되기를 바라며, 에코아트페어에 초대합니다.

기간 10.12.(목) ~ 11.19.(일)
문의 010-9021-6471 장소 강원디자인진흥원

BOMNAE CULTURE

이달의 공연·전시를 소개합니다.



최정숙 다섯번째 개인전

전시

<Homo Aware>

최정숙 작가가 다섯 번째 개인전을 엽니다. 'Homo Aware(의식意識하는 인간)'라는 타이틀로 일상에서의 사유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유가 반영된 작품과 순수한 조형미를 추구한 작품을 함께 발표합니다. '중동태에 대해 생각하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생각하다, 처리수와 오염수에 대해 생각하다, Stream of S' 등의 명제로 100호 3점, 50호 1점 그리고 10호, 20호 작품으로 전시장을 채웁니다.

- 관람시간: 13시~18시

* 초대 10.30(월) 15시

기간 10.30.(월) ~ 11.13.(월)

문의 010-7188-4449 장소 구암갤러리



이재복 개인전

전시

<찬란한 순간>

현실적인 어떤 순간들 또는 삶의 무게로 사람들은 힘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찬란했던 순간이 있고, 찬란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작가의 작품 속 분할되어 나누어진 색면은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사물의 색과는 다른 새로운 색으로 구성된 사물로 화면에 존재합니다. 여러 시공간 속에 존재했던 사물이자 공간이자 시간입니다.

조금 더 긍정적이고, 순간을 즐기며, 행복하게 지금을 보냈으면 하는 메시지를 작품에 담았습니다. 미술관에 오셔서 '찬란한 순간'을 함께 나눠봐요.

기간 10.31.(화) ~ 11.12.(일)

문의 070-8095-3899 장소 개나리미술관



<공간을 빛다:

전시

이국남 건축 아카이브>

오랜 기간 춘천에서 활동해 온 원로건축가 이국남님의 기증자료 3,000여 점을 갈무리하여 춘천지역 건축물, 프리핸드 설계도면 58점이 전시되는 기증특별전입니다. PART1에서는 옛 과학관, 화목원 유리온실 등 기증자가 설계한 춘천지역 건축물을 소개합니다. 건축 공간을 통해 춘천인의 집단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PART2에서는 건축 스케치(프리핸드)를 소개합니다. 그동안 품고 있었던 기증자의 다양한 설계 아이디어를 엿 볼 수 있습니다.

기간 11.1.(수)~17.(금) 문의 261-5105

장소 춘천문화원

이달의 공연·전시를 소개합니다.



2023 춘천 모두의 미술 <‘春川’ 바람, 햇빛, 강물 그리고 사람>

전시

예술가 141명이 참가하는 ‘모두의 미술’ 전시는 춘천의 대표 전시 공간 세 곳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춘천의 한자 ‘春川’을 이루는 요소를 바람, 햇빛, 강물, 사람으로 풀이하고 각 공간의 주제로 삼아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춘천 미술의 모든 것을 담은 이 전시에서는 춘천의 자연과 역사, 문화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춘천문화예술회관, 춘천미술관, 문화공간 역에서 펼쳐지는 춘천 시각 예술 축제의 장으로 모두를 초대합니다.

* 초대 11.1.(수) 14시 춘천문화예술회관

기간 11.1.(수)~19.(일) 문의 259-5833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춘천미술관, 문화공간 역



춘천전통목가구 8인 전시회

전시

춘천 전통목가구를 전시가 열립니다. 협동조합 춘천소목공방은 지난 2019년 겨울부터 오춘택 전 한림대학교수 목공방에서 가구를 만들기 시작한 8명의 작품을 전시 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옛 강원 사람들이 사용하던 강원소반을 비롯해 해주반, 마죽반, 나주반, 통양반 등 비롯해 사방탁자, 애기장, 문갑, 서안, 머릿장 등 다양한 전통가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초대일시는 15일 오후 2시며 백형민 작가의 전통춤과 춘천대금사랑회의 대금연주로 문화의 깊이를 더할 예정입니다.

기간 11.13.(월)~24.(금) 문의 010-5368-5084

장소 춘천시청 로비



<제4회 강평목연전>

전시

우리 지역 수려한 풍경을 산수화 속에 담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춘천의 숨겨진 자연을 홍보하기 위해 올해도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산수화 외에도 봉필화, 민화, 서예 등 40여 점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선과 공간, 테크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기간 11.6.(월)~13.(월) 문의 010-5305-9711

장소 강원대학교 미술관 2층 전시장



제9회 예림회전

전시

<수묵으로 피어나는 봄내골 사계>

한국화 동호회 예림회의 이번 전시는 ‘수묵으로 피어나는 봄내골 사계’라는 주제로 춘천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짙은 묵향에 태워 화폭 위에 담아냈습니다. 유동균 회장 등 20여 명의 회원이 그린 40여 점이 전시됩니다.

기간 11.16.(목) ~ 30.(목) / 초대 11.18.(토) 15시

문의 010-2587-3837 장소 갤러리 상상언더

BOMNAE CULTURE

이달의 공연·전시를 소개합니다.



<브라보! 포스터>

전시

2000년대 초까지 각종 문화행사의 유일한 홍보 수단이었던 포스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립니다. <브라보! 포스터> 전에서는 1980년대의 춘천 지역문화와 1993년 춘천문화예술회관 개관 이후의 음악, 연극, 무용, 전시, 축제 등의 홍보물(포스터, 팸플릿, 티켓 등) 250여 점을 선보입니다. 춘천에서 40여 년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동일 기획자의 소장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된 전시이며, 사라지고 있는 종이 포스터를 통해 춘천문화의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간 11.17.(금)~12.28.(목) 문의 010-4335-9363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송재현 '분홍아이스크림'

<안개마을 제20회 전시회>

전시

안개마을은 2003년 결성된 동호회로 춘천의 비경인 안개를 모티브로 삼아 만들어졌습니다. 회원 수는 2,000여 명으로 춘천 최대의 사진동호회입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이번 정기 전시회에서는 순수 창작 사진과 춘천의 풍경, 일상을 주제로 한 작품 40여 점이 전시됩니다. 회원들의 작품은 홈페이지(fogvill.com)에서도 관람할 수 있으며 1년간 회원들의 노력이 담긴 춘천의 일상과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을 회원들 각자 풀어낸 감성을 통해 재해석된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기간 11.17.(금)~19.(일) 문의 010-7200-4929
장소 옥천동 아트프라자 갤러리



<춘천현대사생회 제19회 전시회>

전시

춘천의 우수 현장 사생 미술동아리인 춘천현대사생회가 19번째 연례 전시회를 갖습니다. 올해는 '계절의 미소 - 풍경'이란 주제로 춘천 주변의 경관지를 찾아 자연과 도시가 만드는 다양한 풍광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현 홍석재 회장과 구자근, 김승선, 김광남, 오홍구 등 지역 원로작가 자문회원을 포함한 33명 회원의 수채화, 유화, 한국화 등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기간 11.24.(금)~29.(수)문의 010-6382-3045
장소 춘천미술관

버려진 목재의 아름다운 부활 폐자재 업사이클링하는 공감건축협동조합

글 한수지 사진 윤현



건축 폐목재로 동네 분리배출장 똑딱!

16일 오전 조양동 6-86번지 공터 앞에 주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10여명의 주민들과 공사 기술자들은 트럭에 실린 나무 자재와 페인트, 공구들을 바닥에 내렸다. 김영자 조운동 2통장은 “폐기되는 건축현장 자재로 재활용 분리배출장을 만들러 왔다”며 공사 내용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다 지어진 분리배출장 외벽에 오일스테인을 칠하는 등 분리 배출장 구성에 참여했다. 공사에 쓰인 재료는 나무와 페인트, 못과 나사 등 건축자재다. 멀쩡하지만 현장에선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소중한 자원이다.

이 공사는 지난 9월 2일 만천리에서 문을 연 공감건축협동조합의 첫 프로젝트다. 윤건웅 공감건축협동조합 대표는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자재가 50%가량 활용됐다. 공사비 절감과 함께 건축폐기물을 마을주민 편의시설에 재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폐목재를 활용한 공사는 새 목재로 만드는 것보다 2배 이상의 노동력이 들어간다. 그는 “누군가가 가공했던 흔적이 있고 그것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하므로 작업이 쉽지 않다. 하지만 못이 박힌 자국들, 곡선들을 어르고 닦아듯이 다듬어 새로운 작업에 들어맞도록 하는 과정이 무척 즐겁다”고 웃음을 지었다.

재활용과 순순환의 가치의 실현

공감건축협동조합은 건축시공 후 남겨진 종고품, 반품 불가 건축자재를 재활용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든 공간이다. 인테리어 종사자, 건축학도, 건축사 등 건축계 시민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건축현장에서 쓰레기로 분류돼 버려지는 폐자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윤 대표는 “우리 모두 건축업에 20년 이상 몸담았던 사람들이다. 건축자재들이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을 보며 늘 한 번에 죄책감이 있었다”며 “춘천에서 지역민으로 성장했으니 노년에는 좋은 일 하며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는 마음으로 뭉쳤다”고 말했다. 이들은 합판, 가구, 문짝이 **버려지는 자재들을 재활용하면 환경도 보호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겠다**고 판단 후 바로 실행에 옮겼다.



만천리 '공감건축' 매장 한 칸에서 춘천시민 무료제공 코너를 운영 중이다

전국 최초 문을 연 폐자재 잡화점의 기적

공감건축협동조합 사무실에는 폐자재 순환 매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양호한 품질의 건축 폐자재를 선별해 공사에 활용·판매하거나 시민들에게 무료 기증하는 곳이다. 이곳에는 필요한 자재를 저렴하게 사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효자동에서 원룸을 운영하는 최승근(82)씨는 “고장이 잦은 문고리나 수도꼭지를 사러 왔다”며 **“시중가의 30% 정도로 살 수 있어서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공감건축은 개장 1개월 만에 4t의 폐자재를 모았다. 이 가운데 1t은 판매됐다. 폐기물은 통상 무게로 재기 때문에 입·출고 기록은 무게를 달아 기록한다. 윤 대표는 “1kg당 800원의 폐기비용이 드는데 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익이다. 거기에 판매에 재활용까지 더하면 3배 이상의 가치와 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감건축과 폐자재 수거와 기부를 약속한 건축업체는 20여 곳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폐목재를 돈을 들이지 않고 처리하고, 공감건축은 재활용할 수 있어 서로가 윈윈인 셈이다.

공감건축은 폐자재와 폐제품 수거·판매에 그치지 않고 가공·생산·시공까지 업사이클링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윤 대표는 **“버려지는 자원의 절반은 다시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춘천을 넘어 대한민국 재활용* 문화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 재활용 :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 등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를 높인다는 뜻의 업사이클(Up-Cycle)의 우리말 표현

춘천의 자전거길



춘천은 의암호, 북한강 수변을 따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전거 도로를 갖췄다.

같은 자전거에 올라도 때로는 운동, 이따금 여행이 되는 도시!

자전거 위에서 바라보는 춘천의 가을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인슈타인은 자전거를 타며 상대성 이론을 생각해냈다고 한다.

자전거를 타자.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지도 모른다.



라이딩코스

우회도로



자전거 대여점 및 수리점



공기주입기



화장실



주요장소



엘리시안강촌



구곡폭포

강촌먹거리
& 숙박촌

강촌역

강촌교

12.5Km
북한강종주자전거길
(경강교 - 구곡폭포)

백양리역

굴봉산역

제이드가든



경강교

자라섬

가평역

illustrated by 스티치

열한 번째
궁금할지도?

남이섬



맡겨 놓은 카페를 아시나요?

#양심에 의해 운영되는 카페 #응원의 메시지 #봉의고등학교 2학년 4반 친구들

'맡겨 놓은 카페'에 대해 듣기 위해 봉의고등학교 2학년 4반 친구들을 만났다. 이제 막 개학하고 수업을 듣느라 살짝 피곤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야기하는 눈빛만큼은 반짝였다.

맡겨놓은 카페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일반 시민들이 맡겨놓은 카페에 응원의 메시지와 음료값을 미리 계산해 놓고 가면, 청소년들이 와서 마신다.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누구나 가서 음료를 마실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은 양심에 의해 운영된다. 춘천에만 20곳이 넘는다. 봉의고 친구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진 건 올해 초였다. 춘천사회 혁신센터에서 학생들의 눈으로 카페를 선정해 보자는 제의를 해왔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학교 주변에 있는 카페를 조를 짜서 다니기 시작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장단점을 살펴본 뒤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나서 학교 주변의 맡겨놓은 카페를 직접 선정했다. 이런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지만 더 넓게 바라보면 우리 마을과 우리 고장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낯선 어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나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 아이들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야 계속 연결이 되어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홍보가 잘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아이들은 다른 학교에서도 맡겨놓은 카페를 발굴하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학교 주변에도 맡겨놓은 카페가 생기고, 부모님들도 알게 되면 알음 알음 소문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청소년은 한자로 쓰면 靑(푸를 청), 少(젊을 소), 年(해 년)으로 풀이된다. 푸른 젊음을 가진 청소년들에게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춘천의 청소년들과 음료 한 잔으로 연결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당장 내 주변에 맡겨놓은 카페가 어디에 있는지 인터넷 창



에 검색해 보는 걸 추천한다. 음료 한잔으로 베푸는 선의가 누군가에는 큰 힘이 될지 모른다.

글 김두산 시민기자

장애인 사이클 선수 원종웅, 두 바퀴로 전국을 제패하다

#꿈을 위해 달리는 원종웅 씨 #장애를 딛고 전국 제패



두 바퀴로 자신의 꿈을 위해 하루를 달리고 있는 원종웅(28. 동면) 선수. 그는 2016년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강원도 대표로 출전해 개인도로와 개인독주에서 5년째 금메달을 독식하고 있는 장애인 사이클 선수다.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 권유로 사이클과 만났다는 원 선수. 이제는 장애를 딛고 전국을 제패하고 있다.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발달장애인 엘리트 스포츠 대회 버투스(Virus) 글로벌 게임에서는 한국 대표로 세계 전통 사이클 강호들과 겨뤄 4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우수선수로 선발된 원 선수는 동계종목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월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크로스컨트리 4km 클래식 동호인부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하계와 동계 종목을 넘나들며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또한 9월 강원도생활체육대회에서는 춘천시 대표로 비장애인과 겨뤄 은메달을

수확하기도 했다. 원 선수는 운동에 집중하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자립을 준비 하고 있다.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바리스타 종목에서 은상은 물론 전국 정보화대회 2위 등 많은 땀을 흘렸다.

11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해 페달을 쉼없이 밟고 있다. 금메달을 꿈꾸며 소양강 처녀상이 있는 '춘천 자전거 플랫폼'에서 주 3회 실내운동을 한다. 그리고 주 2회 일원을 달리고 있다.

원 선수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다. 내년 1월 호주에서 열리는 '비투스 오세아니아 로드 사이클링 월드 시리즈'에 참가하는 것. 이 대회에서 두 종목 우승을 목표로 자신의 꿈을 담금질하고 있는 원 선수. 도전하는 삶 자체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글 이종현 시민기자

문화 리뷰

금요일 밤의 여유를 재즈와 함께

#석사천재즈페스타 #효자교에서온의교까지

두 도시를 오가며 춘천에서 일할 때가 있었다. 금요일 저녁이면 차에서 재즈를 틀었는데 이를 반복하다보니, 근무모드와 휴식모드로 일주일을 분리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재즈만 들으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기분이 좋아졌다. 재즈가 흐르면 빠르게 똑딱거리던 일상의 메트로놈도 템포가 느려지며 여유로워졌다.

여름의 더위가 가시고, 추석이 지나자마자 찾아온 석사천 재즈 페스타는 그래서 더욱 반가웠다. 올해의 수확물을 거두고 고생했던 모두를 다독이며 흥겹게 보내는 추석처럼, 별안간 석사천에 등장한 재즈페스타는 추석을 닮은 축제였다. 여유가 가득한 금요일 저녁을 만난 마음으로 취향 마켓을 서성이거나 맥주 한 잔을 기울일 수도 있고, 함께 하자고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하기도 좋은 날씨였다. 가을의 서늘함과 재즈의 따스한 선율은 더없이 조화로웠다.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석사천 재즈 페스타가 펼쳐진 장소는 효자교~공지교~온의교로 이어지는 산책로로 기존에도 춘천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행사가 열리던 곳이었다.

축제 기간 내내 물이 흐르는 징검다리 옆에는 환하게 빛을 내는 여섯 개의 대형 풍선, 작가들의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함께 했다. 사람들은 산책하는 강아지와 자전거가 오가는 길옆 잔디밭에 사람들은 돛자리를 폈다. 곳곳 재즈를 담요 삼아 사랑과 우정을 속삭였다. 자라섬재즈페스티벌에서 연계된 아티스트의 숙련된 재즈 연주는 찬 바람의 저녁 온도도 올려놓았다. 축제가 열린 공간은 평소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 가치를 몰랐다.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라는 것을 관객들의 열기 속에서 새삼 깨달았다. 융투더션의 분위기를 바꿔가며 질주하는 손가락. 흥이 넘쳐 까닥이는 몸짓과 악기들의 선율. 아담 벤 에즈라의 목소리와 더블베이스의 감미로운 연주, 사람들은 박수로 박을 맞추며 파동 속에서 공감했다. 온의스테이지에 올랐던 재즈 아티스트의 감미로운 연주는 높은 티켓가를 형성하고



있는 유명 재즈페스티벌 속으로 몰래 공간 이동한 기분이 들게 했다. 좀 더 오랜 시간 몰입하여 듣고 싶은 욕심이 자연스레 생겨났다. 재즈가 악기의 폭을 넓혀 포용하는 너그러운 장르이듯 석사천재즈 페스타도 그랬다. 재즈페스타라고 해서 딱 하나의 장르만을 품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무대를 나눴다. 더 넓은 무대로 가기 위해 무대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합창, 전통타악, 마임, 클래식, 코미디도 스테이지에 올랐고 20개의 체험 부스에서는 취향 찾아 삼만리가 가능했지만 재즈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영상이나 교육 등 재즈를 다방면으로 알아볼 기회도 있었으면 싶었다.

전통주와 맥주 등을 즐기는 푸드존이 있어 먹거리도 함께 곁들이며 음악과 흥겨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넥타이도 허리띠도 헐거워지는 시간, 마음의 조임을 풀 수 있는 색다른 축제를 바로 우리 도시,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만나 반가웠다. 일상에서 이런 행복한 만남이 또다시 집 앞 돛자리를 펼치듯 편안하게 선물처럼 다가오길 바란다.

글 이계림 시민기자

우리가족 이야기



춘천의 청정계곡 삼한골 품은 국립춘천숲체원, 넘버원! 떠나가는 여름이 아쉬운 이유, 춘천의 청정계곡 삼한골 계곡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신복음예문을 연 국립춘천숲체원은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는 최고의 나들이 장소인데요, 맑고 깨끗한 계곡 물과 그 안에 다양한 생태 환경까지, 더할 나위 없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 유 서 현



23년1월10일 우리 소중한 둘째의 탄생! 뱃속에서부터 순하디 순했던 우리 유은이 태어나서도 이렇게 빵긋빵긋 잘웃고 엄마아빠 그리고 언니에게 보물과도 같은 선물이 되어줘서 고마워 :) 지금처럼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행복을 줄게 많이 많이 사랑한다 ~!

- 지 한 솔



세상 모든 즐거움을 온몸으로 한껏 깨안은 듯 까르르 웃는 너. 서하네가 주는 행복이 이렇게 클 줄 엄마 아빠 미처 몰랐어. 2022년 여름날 태어나, 2023년 눈부신 여름을 보낸 우리 서하. 너의 앞날이 앞으로도 여름 햇살처럼 눈부시게 빛나길 엄마 아빠는 언제나 바랄게. 사랑해 우리 딸 ♡

- 심 소 은



우리 가족 호반 카누체험. 소양강변의 물살을 가르며 무더위도 날리는 카누체험. 물의 도시이어서 행복합니다.

맑은 물 푸른 산 좋은 사람들 행복도시 춘천.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우리 가족 추억의 한 페이지 가득 채웠습니다.

- 서 창 범

조면사의 비밀

- 국수는 춘천의 맛이다

글 최돈선 사진 이수환

월송리 조면사(造麵寺)를 아십니까.

누군가 그렇게 물어온다면 대부분은 고개를 갸우뚱거릴 것이다.

조면이라면...국수 만드는 절 말인가요?

네, 그래요. 우리 춘천엔 그런 절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서면 월송리로 간다.

월송리엔 삼층석탑이 아담하게 서 있다.

민가 창고 옆에 1.5m의 삼층석탑이 아담하게 서 있다. 고려 시대의 탑으로 추정하는데, 석탑 주변 들깨밭에선 종종 기왓장이 발견된다고 한다.

사라진 조면사의 흔적이다.

춘천에서 이 월송리 깊은 곳까지 오려면 두 갈래 길이 있다. 의암댐 위 신연교를 건너 동쪽 길인 서면으로 오든가, 아니면 신매대교를 건너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길을 따라 들어오다 보면 월송리 입구가 보인다.

길은 구불구불하고 좁다.

이 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월래동과 송우리의 '월'과 '송'을 합하여 월송리가 되었다고 전한다.

월송리는 달과 소나무를 지명으로 한 은둔의 마을이란 뜻을 지닌다. 그래서 그런지 맑은 가을볕이 황금 들녘을 곱히 적신다.

그런데 이곳에 고려 시대 옛 절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듣기에 생소한 국수 만드는 절인 '조면사'가.

천 년 전부터, 아니 더 먼 옛날부터 사찰에선 특별한 일을 담당하는 절이 있었다. 국수 만드는 절인 '조면사造麵寺'와 두부 만드는 절인 '조포사造泡寺', 그리고 탑을 만드는 절

인 '조탑사造塔寺'가 있었다는 기록이 문헌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그런 절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린 역사를, 아주 조금의 실마리를 통해 그 먼 옛날을 상상해 보아야 한다.

사찰 음식을 이야기할 때 승소(僧笑)란 말이 있다.

누가 '스님 잿죽 끓여드릴까요'라고 하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다가, '스님 국수 삶아드릴까요?'라고 하면, 모두 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한다고 한다.

그만큼 스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국수를 꼽는다. 그래서 국수를 '승소' 또는 '낭화'라고 부른다.

국수는 밀과 메밀로 만드는 음식이다.

밀이나 메밀은 조와 귀리처럼 특수작물이다.

밀이나 메밀로 만드는 국수는 귀한 음식이었다. 잔치 때나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53년 6.25전쟁 이후, 구호물자인 밀가루가 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쌀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집집마다 주로 구호물자인 밀가루를 반죽하여 국수나 수제비를 만들어 먹었다. 동네 고갯길이나 지방도로를 조성할 때, 마을 사람들에게겐 노임의 명목으로 밀가루를 나누어주었다. 그래서 밀가루 공사로 만들어진 고개나 길들을, 405 밀가루 고개, 708 밀가루 대로라 불렀다.

강원도는 특히 메밀 재배가 많아 메밀국수를 많이 만들어 먹었다.

메밀은 산골의 척박한 돌투성이 땅에서도 잘 자라는 곡식이다. 가을밤이면 돌밭이나 산비탈이 온통 소금꽃이 피어





미국원조 밀가루 포대(위)와 막국수

난 듯 메밀꽃으로 환했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오는 메밀밭은 소설의 중요한 배경으로 시적 분위기를 물씬 자아내었다. 이 소설을 읽으면 알게 모르게 메밀향이 난다고 했다.

메밀은 전 국민에게 문학적인 미학으로 자리 잡았다. 강원도는 이효석의 소설로 메밀국수의 고장으로 거듭났다. 그중 춘천의 막국수는 6.25전쟁 후, 춘천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새로이 등장했다. 춘천, 하면 으레 막국수를 떠올리게 될 정도로 그 인기가 높다.

막 뽑아 금방 먹는 메밀국수라 하여 막국수라 이름 붙였다. 옛날 효자동 교도소 담을 끼고 도는 모퉁이에 처음 막국수집이 문을 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사라진 소문이어서 정확히 아는 이가 없다.

지금 춘천에서 제일 오래된 막국수집은 사창고개에 자리한 ‘실비막국수’ 집이다. 춘천 제1호점이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

역사적으로 춘천은 조면사란 절이 있을 정도이니 국수의 고장임을 가히 짐작케 한다. 그 전통의 맥이 고려 적부터 면면히 흘러와 춘천의 맛이 된 것은 아닐까.

조면사는 큰 절인 본사(本寺)에 딸린 말사(末寺)라고 생각한다. 스님들이 직접 주변 밭을 일구어 밀과 메밀을 경작했을 것이다. 부처님께 올리는 음식 공양이나 스님들의 특식으로서 국수가 제조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본사라고 추정되는 절은 강 건너 소양로2가에 있었다. 칠층석탑 주변을 파다가 그릇이 발견됨으로써 그 존재가 알려졌다. 그릇엔 ‘충원사’란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충원사는 현재 남아있는 ‘춘천7층석탑’과 부근 당간지주로 하여 그 규모가 대단했음을 짐작케 한다. 전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춘천 서면은 별이 잘 들고 땅이 넓다. 충적토인 서면 강 유역은 화천강과 소양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 흙질이 매우 부드럽고 비옥하다.

지금은 감자를 거둔 밭에, 가을배추를 심어 기른다. 질펀한 들은 온통 초록빛이다.

기원전 6세기 삼한시대부터 마을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현재 신매리유적지가 그것을 증명한다.

짐작컨대 신매리부락은 조면사 월송리까지를 아우르지 않





칠층석탑

았나 싶다. 이곳에서 밀과 메밀이 많이 재배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그것을 스님들이 수확하여 맷돌에 갈아 밀가루와 메밀가루를 만든 다음, 국수나 메밀을 소재로 한 음식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메밀가루와 반죽이 된 메밀 뭉치는 이 오미나루를 이용하여 충원사로 운반되었을 것이다.

저 멀리 당간 깃발이 펄럭이면 신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충원사는 대법회를 열었을 터이다. 법회가 끝나면 스님과 신도들에게 점심으로 국수가 제공되었을 것이다. 이젠 오로지 필자의 상상일 뿐이다.

만약 어떤 분이 필자와는 전혀 다른 상상에 젖는다면, 그건 또 다른 한 페이지가 될 터이다. 역사적인 상상은,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발현되기 마련이다.

역사적 추리로써 맥락을 더듬어본다는 일은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뭔가 아쉽다. 춘천에서 사용하는 메밀은 거의 중국에서 들어온다. 지금의 현실에선 메밀을 경작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이다. 저렴한 중국산 메밀보다 국산 메밀은 그 값

이 비싸서 재료로 사용할 수가 없다.

예전에 몇 집이 국산 메밀을 고집했으나 지금은 쓰지 않는다.

서울 조계사 근처엔 ‘승소’란 이름의 메밀국수집이 있다고 들었다. 코로나로 하여 문을 닫았다고 한다. 지금쯤 문을 열었을까.

춘천에도 그런 ‘승소’란 이름의 막국수 한 집쯤 있었으면 싶다.

법정 스님은 살아생전에 간장메밀국수를 즐겨 드셨다고 한다. 나도 스님의 미소처럼 저절로 웃음이 비어져 나오는, 그런 담백하고 순수한 메밀국수 한 그릇 비우고 싶다.

메밀 향 입가에 은은히 머무는

그런 수수한 국수

생각만 해도 저절로 승소가 지어지는 그런 가을날이다. *

최돈선 시인 춘천시 둘레엔 1개 읍, 9개 면이 있다. 나는 그곳이 궁금하다. 그 고요한 곳에 현자는 있을 것이다. 당산목 같은 우직한 당신의 사람들이.



1학년 아이의 살림 걱정

글 송주현 그림 한선주

어느덧 학년말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갖고 싶었는데 못 가져서 2학년 때는 꼭 갖고 싶은 것>에 대해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 예상되는 답은 장난감이나 핸드폰처럼 생활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일 텐데요. 예상대로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아

이가 불쑥 집을 갖고 싶다고 말하는군요. 의외의 주제라 그런지 아이들 대화가 분분했습니다.

"집? 야, 너 그거 돈 엄청 많아야 해. 삼천만 원 정도 있어야 할걸."

"(다른 아이가) 야, 삼천만 원으로 안 돼. 선경이네 축사에 있는 소 다 팔아도 못 살걸.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냐? 선경아, 맞지?"

"(선경이가) 얼마 전에 우리 아빠가 송아지 이백만 원 받았어."

"헐. 이백만 원? 와, 쩀다."

이백만 원이 많다는 건지 그 반대라는 건지 잘 몰라 다시 물어보려는데, 집이 필요하다고 한 아이가 갑자기 목청을 높입니다.

"야, 우리 내년 봄에 전세 올려줘야 하니까 그렇지. 아니면 이사 가야 해!"

"헐. 넌 유치원 때 이사 왔으면서 또 이사 가냐?"

"야, 그럼, 전세 올려줄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니네 엄마 아빠가 돈 벌겠지, 걱정하지 마. 으이구."

"야, 우리 엄마 아빠 돈 많이 벌어도 안 된다니까! 고모랑 할머니가 돈을 가져가서."

"헐. 고모랑 할머니가 돈을 가져갔어?"

뭔가 풀리지 않는 듯한 대화에 아이들 표정이 가라앉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위로하려는 듯 말합니다.

"야, 그러면 효자동으로 이사 가. 우리 작은 아빠가 거기 사는데 아파트 엄청 많대."

마냥 어려 보이지만, 1학년 아이들도 돈 걱정을 합니다. 이때 느끼는 불안은 어른의 그것보다 큼니다. 그걸 조금이나마 덜어보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저는 본의 아니게 아이들 사정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아빠가 어제 아저씨들이랑 술 먹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술값을 다 냈잖아요, 글썄. 엄마가 아빠한테 막 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빠가 엄마한테 그만 좀 하라 소리질러서 엄마가 울었죠."

"할아버지가 술 잡숫고 오토바이 타다가 꼬라박았던 말이에요. 다리가 푹 부러졌죠. 아빠가 돈이 없는데도 사고쳤냐고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랬죠. 할머니가 울었잖아요."

"우리는 쪼끄만 집에 여섯 명이나 사는데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나오는 어떤 애는 엄청 좋은 집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우리도 저런데 이사 가면 좋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서 살아, 이러잖아요."

아이들 대화를 듣고 마음이 아픈 이유는 대화 속 어른들의 모습이 가난하지만, 처지를 비판하지 않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더 약자인 다른 가족(엄마, 할아버지, 아이)에게 전가하거나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아이의 마음을 수용해 주기보다 빈정거림으로 대해서 아이가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게 하고 긍정의 힘을 알려주는 게 교육일 텐데 돈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높은 빌딩이 많고 물자가 넘쳐나는 이 풍요로운 나라에서 부모님은, 이 사회는, 국가는 어째서 겨우 1학년 밖에 안 된 아이들이 돈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걸까요. 형편이 어려워도 아이에게 곤궁함을 드러내는 대신 지금은 어렵지만,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식구 모두 잘살게 될 거라고, 그러니 너도 건강하게 자라라고 말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자라난 아이는 삶에 대해 희망을 품고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수험생 여러분'이었던 그 날

글 그림 김수영

#1. 2013년 11월 7일 오전 7시 30분

도보로 10분 조금 안되는 거리에 위치한 시험장까지 아빠와 함께 걸어갑니다. 명동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늘 소양 2교까지 나가던 평소와는 다른, 반대쪽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보통과는 다른 하루의 시작에 마치 일탈을 하는 것만 같아 심장이 더욱 두근거렸죠. 긴장되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합니다.

그날은 시험 유형이 달라 왁자지껄한 후배들의 응원소리나, 매일 만나던 친구들과의 잡담 따위는 없었습니다. 덤덤하게 나누었던 아빠와의 인사가 전부였죠. 그렇게 뒤돌아 입실하려는 순간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방학 보충 수업 때나 잠깐 뵈었던 수학 선생님께서 나와 계셨죠.

“고생 많았어. 후회 하지 않을 만큼만 열심히 하고 나와.”

학교에선 늘 무뚝뚝해 보이던 얼굴에 미소가 살며시 번지며 말씀해주신 한마디였습니다.

#2. 2013년 11월 7일 오후 4시 35분

세계지리 답안지까지 걷고 난 뒤, 짐을 챙겨 시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단 하루만을 위해 그동안 달려 왔더니... 오늘이 지나면 마냥 흥분할 것만 같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허탈함과 이유 모를 공허함만이 몸 전체에 가득했죠. 울렁거리는 감정에 싸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선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겠습니다.

“야! 김수영”

교문 건너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초점 잃은 눈빛으로 걷고 있던 저를 부릅니다. 부모님께서 끝나는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채워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공허함이 어느샌가 가득 채워져 사라져 있었습니다.





#3. 2023년 11월 누군가의 이야기

우리 대부분의 기억 속 어딘가에는 '수험생 여러분'이었던 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서른을 앞둔 지금의 저 역시도 한때는 '수험생 김수영'이었죠. 지금은 그날 아침은 무얼 먹었는지, 시험장에는 어떤 옷을 입고 갔는지도 기억 나지 않을 정도로 빛이 바랬지만, 그날의 따뜻했던 기억만큼은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코가 시릴 정도로 추운 날씨에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었던 학교 선생님의 한마디가. 언제부터 기다리고 계셨을 지 모를 부모님께 느꼈던 죄송함과 포근함이 가끔씩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아가다 지친 저를 일으켜주는 원동력이 되어주곤 하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란 가끔 크고 작은 위안을 주곤 합니다. 나와 비슷한 고민이나 상황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게 되기도, 자신감을 얻게 되기도 하죠. 다양한 이들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며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 10년 전 수험생이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빛 바랜 기억을 꺼내어봅니다. 제가 느꼈던 따뜻한 순간들을 적어 보내드립니다.

많이 힘들고도 외로웠을 당신에게 참 잘 이겨냈다고 말해주고 싶은 밤입니다.

-

김수영 회화작가. 10여 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살아온 탓에 표준어와 사투리가 섞인 억양을 쓰지만, 어엿한 15년차 춘천인. 우리를 둘러싼 것들이 만들어내는 익숙하지만 새로운 이야기들을 그립니다.



의회소식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 공동 세미나 개최

춘천시의회(의장 김진호)는 지난 10월 10일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충주시의회(의장 박해수), 강원도민일보사(회장 김종석)와 공동으로 「소양강댐·충주댐 주민피해 공론화를 위한 춘천시의회·충주시의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정책, 지역상생을 위한 개선방안」, 박제철 춘천시의회 의원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선방안」, 박상호 충주시의회 의원의 「댐 주권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진장철 강원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 강명철 충주시의회 의원,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박일선 전국댐연대 의장이 토론에 참여,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 손실과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춘천시의회와 충주시의회는 소양강댐·충주댐 주민피해 공론화를 위해 협업체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나가기로 하였고, 댐 주변 및 상류지역의 용수공급 등에 대한 합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칭)댐용수세 신설」에도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춘천시의회 자치의정연구회 간담회 및 중간보고회 개최

「춘천시의회 자치의정연구회(회장 신성열 의원)」는 지난 9월 15일에 정원문화확산을 위한 간담회에서 허영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윤영조 교수 연구팀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고, 10월 6일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과제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연구회원, 용역사 및 관련 주민과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회 모임에서 이루어진 의견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계속 의견을 수렴해 가기로 했습니다.



정원문화확산을 위한 간담회



탄소중립 정책과제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5분 자유발언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춘천대첩 홍보 제작 영화 적극 협조와 기념관 건립 조기 추진 제안

의원 김용갑



6·25 전쟁 중 3대대첩으로 '춘천지구 전투', '낙동강 지구전투',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고 있을 정도로 춘천지구 전투, 즉 춘천대첩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춘천대첩 홍보영화 제작 및 기념관 건립은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전쟁의 잔혹함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으며, 춘천시민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높이고, 춘천의 상징적 이미지를 높여 관광 명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춘천시에 춘천대첩 홍보 제작 영화에 대한 협조와 춘천대첩 전승기념관 건립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공적 지원방안 마련

의원 윤민섭



사회적 고립에 대한 기존 정책들은 주로 노인이나 중년의 고독사 문제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고립 문제가 노년기뿐 아니라 청소년기에서 중장년층까지 생애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은둔 고립형 청년이 늘어날수록 사회·경제적 활력은 물론이고 국가의 미래 희망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춘천시도 서둘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자체 등 모든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홀로 고립되어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인 어려움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공적지원 방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강소특구 육성사업 지원 확대 필요성

의원 김보건



춘천 캠페이지 부지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에 선정되었습니다. 시범지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역 내 바이오기업 지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유망기업 발굴 및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캠페이지 부지를 개발하여 데이터, 바이오, 의료산업 등 첨단복합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2만 명 이상 고용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술창업 지원을 통해 강소특구 내 기업들 간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 신설 필요성

의원 김운기



춘천시 인구 30만 달성과 기업유치, 첨단지식산업도시 등 당면해 있는 과제를 위해 한걸음 한걸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설치를 제안합니다. 춘천시 소재 산업단지의 제대로 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 즉 경영지원, 혁신지원, 안전관리 기능강화를 통해 목적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지역균형발전과 강원도 소상공인들, 특히 춘천시 소상공인들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강원지역본부의 독립, 유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는 춘천 경제활성화와 인구 30만 만들기라는 퍼즐의 중요한 조각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 지역 균형발전에 관하여

의원 박제철



1995년 도·농통합은 생활권이 비슷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통합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자치단체 스스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자생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30여년이 지난 현재 도심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은 낙후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인구 이동이나 도시개발 측면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원도심 지역은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인구격차, 지역개발의 현격한 차이 등 불균형의 난제는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 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해야 합니다. 춘천의 발전지역과 낙후지역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의정활동 이모저모

2023. 9. 14. 경제도시위원회 투자유치와 사업보고 및 간담회



2023. 9. 18. 춘천원도심상권르네상스사업에 관한 실태파악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이모저모

2023. 9. 18. 김진호 의장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3. 9. 19. 김진호 의장 추석명절 복지시설 위문



2023. 9. 20. 경제도시위원회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현장방문



2023. 9. 20. 부산 해운대구의회 「지역축제연구회」 춘천시의회 방문



2023. 9. 22. 춘천시의회 추석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참여



2023. 10. 5.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참가



행복나눔 후원 릴레이 80호

이나연님과 가족들에게 따스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대상 이나연(가명, 만30)
목표금액 아동인재양성비 400만원
모금기간 11.1.~11.30.(1개월)

모금계좌 농협 203-01-548843/ 신한 100-035-191184
예금주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강원도지회

이나연(가명·만30세)씨는 남편과 함께 다섯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되지 않아 일을 하기 어려워 남편의 근로소득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내는 조산으로 태어나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비 지출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친정과 시댁 모두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집에서 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집 근처로 옮기기를 희망하나 어린이집 원비가 밀려 퇴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소득·다자녀 가구로 가족의 생계와 양육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응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후원문의 시 복지정책과 ☎250-3496

행복나눔 후원 릴레이 79호 모금 결과

지난 10월,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79번째 대상자 김연주(가명·만 40) 씨에게 보증금 지원을 위한 40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모금에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세제 혜택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244-16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춘1000인 천원나눔 범시민 운동 참여 안내

매월 1,000원의 금액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범시민 운동으로, 후원액은 1인 매월 1,000원부터 입니다.

※ QR코드를 스캔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춘천인천원나눔 페이지로 이동





춘천육림랜드 안개마을 동호회원 이범용

봄내골 소식

하랑복지사회적협동조합(조합장 김미경)은 후평1동 한부모 5가정에 바자회 수익금(100만원)을 각 20만원 씩 지원했다.



후평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정임)는 9월 13일 담근 김치를 취약계층 및 홀몸어르신 90가구와 관내 복지시설 10개소에 전달했다.

신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경순)는 9월 13일 관내 어려운 이웃 22가구에 반찬 6종, **전주장작물곰탕**(대표 이창훈)의 곰탕, **티라미수**(대표 권강현)·**보광사**에서 후원한 빵을 전달했다.

춘천시산림조합(조합장 임동일)은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에 추석 맞이 저소득층 후원 물품(라면 20박스)을 전달했다.



강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옥희)는 9월 14일, 직접 만든 반찬을 독거 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 41가구에 전달했다.

소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선희)는 9월 18일 홀몸어르신 등 8가구에 화장지, 두유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후평1동 주민자치회(회장 안봉철)는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에 '행복나눔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 수익금 155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효자1동 복지위원회(위원장 박인호)는 9월 18일 추석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20가구에 라면 및 식료품 20세트를 기부했다.

춘천중부새마을금고는 9월 18일 추석을 맞이하여 효자1동 저소득층 및 홀몸어르신 50가구에 햅쌀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후평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순분)는 9월 19일 밀반찬을 만들어 생활이 어려운 이웃 10가구에 전달했다.

퇴계동 자원봉사단(단장 김혜옥)은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해 한과와 직접 만든 김치를 전달하는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한전KDN(사장 김장현) **강원사업처**(처장 김창수)는 9월 18일 신사우동 행정복지센터에 취약계층을 위한 양곡 10kg 40포, 과일 혼합 40상자를 기증했다.



성문군인교회(목사 김상남)는 9월 18일 추석을 맞아 신사우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쌀 10kg 30포, 라면 30상자를 기증했다.



후평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연제철)는 9월 18일 꿈샘지역아동센터에서 3분기 생일 아동 5명에게 선물과 간식을 전달했다.

춘천 좋은이웃들(회장 박상옥)은 9월 19일 저소득가구를 위해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에 우유팩을 휴지 200롤로 교환해 후원했다.



함께해서 행복한 봄내골 소식을 전합니다. 지면 사정상 들어가지 못한 사진은 봄내 홈페이지(bomnae.chuncheon.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춘천중부새마을금고(이사장 최철희)는 9월 19일 어려운 이웃 30가구를 위한 쌀(60만원 상당)을 강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옥희)에게 전달했다.

세움교회(담임목사 한현성)은 9월 20일 소양동 행정복지센터에 추석맞이 후원품 쌀 40포와 라면 40상자를 전달했다.



춘천동남새마을금고(이사장 박진수)는 9월 20일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에 추석맞이 취약계층을 위한 햅쌀(10kg) 70포를 기탁했다.



MG춘천중부새마을금고(이사장 최철희), **가톨릭춘천신협**(이사장 배종호), **춘천중앙성결교회**(담임목사 장기동), **보문각**(대표 김선미)은 추석을 맞아 약사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진태)에 후원품을 전달했다.



소양동 자원봉사단(단장 이관선)은 9월 21일 홀몸노인 등 소외계층 10가구에 직접 만든 반찬을 전달했다.

동춘천로타리클럽(회장 김장섭)은 9월 21일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추석 맞이 저소득층 후원물품(김 50세트)를 전달했다.



춘천시농수산물도매시장 소속법인 중앙청과(주)는 9월 21일 추석을 맞아 강원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과일 400상자(1,500만원 상당)를 후원했다.



Sh수협은행 춘천지점(지점장 정경미)은 9월 21일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내 저소득가정을 위한 라면, 김 등 25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전달했다.



신복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신림)는 9월 21일 관내 저소득 및 독거노인 40가구에 직접 조리한 반찬을 지원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주)한국타이어춘천판매(회장 임기수)는 9월 21일 추석을 맞아 양곡 10kg 50포를 근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춘천나눔봉사회(회장 임영태)는 9월 22일 신동면 행정복지센터에 추석 맞이 취약계층 후원물품(갈비탕, 떡 등 31세트)를 전달했다.



신복교회(담임목사 이창봉)는 9월 23일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 52가정에 **샘밭농장**에서 기부한 계란52판(30개/1판)과 햅쌀 520kg을 각 가정에 전달했다.



봄내골 소식

춘천성광교회(조용아 목사)는 9월 25일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내 저소득층에 춘천사랑상품권 200만원을 기부했다.



조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노석호)는 9월 25일 추석을 맞아 관내 70세 이상 홀몸어르신 23가구에 식료품(송편, 식혜)을 전달했다.

신사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승규)는 9월 25일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 20가구에 밑반찬을 전달했다.

춘천남부새마을금고(이사장 정용현)는 9월 25일 석사동,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백미 10kg 70포를 각각 전달했다.



후평2동 통장협의회(회장 박재영)는 9월 25일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에 추석맞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햅쌀 4kg 100포를 전달했다.

춘천석사감리교회(담임목사 손학균)는 9월 25일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백미 10kg 35포(13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후평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종철)는 9월 25일 취약계층 107가구에 김치와 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강원도시가스(대표 박화영)는 9월 25일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에 식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식사 대용 영양식 25상자를 전달했다.



근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근홍)에서는 9월 26일 추석을 맞아 직접 만든 전과 송편을 저소득 50가구에 전달했다.



소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선희)는 9월 26일 추석을 맞아 소외계층 60가구에 직접 담근 김치, 불고기(8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남숙)는 9월 26일 추석을 맞아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송편과 **명품한돈 한우도매센터**(대표 장운진)의 돼지고기, **춘천사**(주지스님 일원)의 과일모듬세트를 전달했다.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변영혜)은 마음이음 대상자(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와 함께 마을장터를 개최, 수익금으로 구입 한 라면 20상자(30개입)를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퇴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염현섭)는 9월 26일 추석을 맞아 관내 홀몸어르신 가구 등에 직접 조리한 명절음식을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함께해서 행복한 봄내골 소식을 전합니다. 지면 사진상 들어가지 못한 사진은 봄내 홈페이지(bomnae.chuncheon.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순원)은 9월 26일 추석을 맞아 신복읍 독거노인 1가구와 장애인 시설 1개소를 방문 위로하고 상품권 40만원(20만원씩)을 전달했다.



후평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연제철)는 9월 26일 관내 저소득 180가구에 추석을 맞아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본부 의암수력발전소(소장 권순환)는 추석을 맞아 9월 26일 의암리 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쌀 20kg 23포를 전달했다.



구세군춘천교회(사관 정일해)는 9월 27일 석사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라면 40상자(1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동산면 구암교회(서창범 목사)는 추석을 맞아 라면 42박스를 원창리와 군자리의 독거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분들에게 전달했다.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정진우)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춘천지역협의회**(회장 전명준)는 춘천시 나눔의동산, 애민보육원, 해솔직업사관학교에 금일봉과 돼지고기 220kg, 라면 130상자 등을 전달했다.



제2236부대 백령봉사단은 춘천시립양로원을 방문하여 직접 수확한 꿀 고구마 18상자를 전달했다.



신동면 새마을부녀회(회장 박명순)는 관내 소외계층 100가구에 직접 만든 반찬과 불고기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였다.

남산면 새마을부녀회는 추석을 맞아 '사랑의 바자회' 수익금으로 구입한 이불 33채를 남산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봉사 및 행사

석사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성숙),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변영혜)은 9월 11일 관내 1인 중·장년 가구의 주관적 건강인식 및 영양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후평1동 주민자치회(회장 안봉철)는 9월 12일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개최했다.



조운동 주민자치회(회장 최문길)는 9월 14일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 마을사업을 확정했다.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9월 14일 주요 자생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6회 세대공감 행복나눔캠페인을 진행했다.

봄내골 소식

효자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강금옥)는 9월 14일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강릉시 일원에서 '신바람! 콧바람! 어르신 나들이'를 개최했다.



석사동자원봉사단(대표 엄옥란)은 9월 15일 춘천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주방봉사활동을 펼쳤다.

후평1동 마을복지계획단(단장 최종철)은 9월 15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3가구를 대상으로 '후평1동 깔꿈이 청소단' 마을복지계획 사업을 진행했다.

석사동 하천살리기 시민실천단(단장 박윤서)은 9월 19일 석사천변 산책로 및 벌말공원 인근에서 추석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신북읍마을복지계획단(단장 김신림)은 9월 18일, 19일 한샘고등학교(교장 한세훈)의 바이오코스메틱과, 뷰티패션과, 조리과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거동불편 어르신들께 이 미용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신사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승규)는 9월 19일 주거 취약계층의 집수리 및 집 정리정돈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효자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강금옥)는 9월 19일 관내 취약계층 50가구에 <사랑 나눔 '情' 도시락 배달> 사업 반찬을 전달했다.

신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경순)는 9월 19일 신사모(회장 김재익)가 후원하는 '신동면 어르신 생신잔치'에 홀몸 어르신 등 20가구를 초청, 축하공연과 식사를 대접했다.

동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곽진수)는 9월 20일, 지역 내 음식점에서 7~9월 생신을 맞으신 독거어르신 및 고령 노인 부부 20명을 초청하여 생신 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효자2동 통장협의회(회장 김영숙)는 9월 21일 "탄소중립생활실천단"을 결성하고,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 환경정화 캠페인 등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 설 예정이다.



한전MCS(주)강원지사(지사장 황동한) 사회봉사단은 9월 22일 소양강댐 정상 및 자전거도로 일원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신북읍 행정복지센터는 9월 22일 소양강댐노인복지관(관장 허미숙) 주관으로 신북읍 이웃복지사 직무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소양동 주민자치회(회장 정락병)는 9월 23일 춘천 칠층석탑 역사공원에서 제2회 소양동 주민 한마음 마을축제를 개최했다.

강원대학교집수리봉사단(단장 이호성)과 **후평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정임)는 9월 23일 취약계층 가구에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실시했다.



후평2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위원장 최경숙)는 9월 25일 부안초등학교 앞에서 폭력없는 교실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예방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함께해서 행복한 봄내골 소식을 전합니다. 지면 사정상 들어가지 못한 사진은 봄내 홈페이지(bomnae.chuncheon.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사우동 마을복지계획단(단장 이승규)은 9월 25일 '찾아가는 보건복지은행' '달큰한 인생' 사업으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춘천시청 사진동호회(회장 고관춘)는 교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에게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사진 액자를 제작해 전달식을 했다.

석사동 주민자치회(회장 김창수)는 9월 25일 이승진 도의원, 신성열, 나유경 시의원 등이 참석,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도로변에 가을 철 시민꽃정원 꽃모 식재를 했다.

후평2동 지역자율방재단(단장 이광형)은 9월 26일 일단지 시장 일원에서 시민 및 귀성객 맞이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강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옥희)는 10월 6일 결연 대상 어르신 23명을 모시고 점심식사를 대접하며 건강을 기원했다.

후평2동 마을복지계획단(단장 박정임)은 집수리 지원사업인 '동네일꾼 후이'로 관내 홀몸어르신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북부지역본부 강원지사(지사장 황동한)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춘천시장애인근로사업장**(원장 박유찬)과 친환경 제품 사용 및 사회 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운동 주민자치회(회장 최문길)는 10월 10일 춘천동부교회에서 어르신 200여명을 모시고 어르신 행복나눔 잔치를 열었다.

복지정책과 후원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회장 장길자)는 9월 13일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 25가구에 식료품 꾸러미 25상자를 전달했다.

공감건축협동조합(대표 윤건웅) 9월 26일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 29가구에 양곡 300kg를 전달했다.

찾아가는 SDGs

주최·주관
춘천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후원
춘천시

취지

관내 학교, 마을을 방문하여
학생과 시민의 눈높이에서 SDGs를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시민의 실천역량을 강화

내용

사업명 : 찾아가는 SDGs
사업대상 : 춘천시 관내 공공기관 및 단체, 10명 이상의 모임 누구나
신청기관 : 연중 상시
운영내용 : 지속가능발전 강사양성과정을 마친
시민강사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SDGs에 대해 홍보하고 교육



신청방법문의 춘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033-243-9800



시정 정보

거주불명등록자 기초연금 신청 안내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거주불명등록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단독 202만원, 부부 323.2만원

- 연 금 액: 단독 32.3만원, 부부 51.7만원

※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차등 지급

제출서류: 본인 명의 신분증, 통장사본 등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앱으로 신청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 경로복지과 ☎250-4186

2023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4년도에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되므로, 일반세대 보조금 지원사업은 금년도 종료 예정

지원대상: 2023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저녹스보일러
(도시가스 연료용)

신청기간: ~ 12. 10.(물량 소진시까지)

사업량: 1,900대(2023. 9월 말 기준 잔여물량 1,000여대)

지원금액: 일반세대 1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문의: 시 기후에너지과 ☎250-4367

*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공고 참조

'춘천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모집기간: 11. 1.(수) ~ 11. 7.(화)

모집대상: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 경험이 풍부하거나 춘천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모집인원: 4명 이내

접수 및 선정기준, 제출서류 등 세부내용: 시 홈페이지 → 행정정보 → 고시/공고 → '춘천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확인

문의: 시 토지정보과 ☎250-3434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공시일: 2023.10.31.

이의신청 기간: 2023.10.31. ~ 11.30.(30일간)

장소: (방문)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일사편리(www.kras.go.kr)

열람내용: 지번별 m²당 토지가격

제출사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제출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문의: 시 토지정보과 ☎250-3262, 3812, 3814, 3816

우리집 수도물 안심확인제 안내

신청기간: 연중 지속

신청대상: 수도물 수질이 궁금한 춘천시민 누구나

검사항목: pH,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등 23개 항목

신청방법: 물사랑누리집(lovewater.or.kr) 또는 전화 ☎250-4929

분석결과는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하여 20일 이내 확인 가능

문의: 시 수도운영과

☎250-4929



수도계량기 보온재 보급 안내

신청대상: 15~25mm 구경 타원형 보호통

(아파트, 빌라, 연립 등의 벽체형 수도계량기 함 제외)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배부 일시에 수령

(신청 순으로 배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기간: 11.1. ~ 11.14.(2주간), 배부 11.15. ~ 22.

문의: 상하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과 ☎250-3443

※구경 자가진단: 15mm(가로 폭 47cm), 20~25mm(가로 폭 59cm)

보건소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대상 및 사업기간 :

- 65세 대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예약 실시일: 2023.9.26. / 접종 실시일: 2023.10.19.~2024.3.31.

- 그 외 12-64세:

예약 실시일: 2023.10.18. / 접종 실시일: 2023.11.1.~2024.3.31.

접종백신: XBB(화이자, 모더나) / 무료접종

사전예약: 당일접종 우선

- 온라인(본인 및 대리예약 가능, 사전예약누리집 ncvr.kdca.go.kr, 의료기관, 콜센터 ☎1339)

접종기관: 위탁의료기관 63개소 - 보건소 홈페이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nip.kdca.go.kr

접종횟수: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1회 접종

문의: ☎250-4600, 4602 / 245-5948

도서관**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재개관 행사 안내**

기간: 11. 25.(토) 10:00 ~ 11. 30.(목)

장소: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엠텔로 830-24)

내용: 재개관식, 내부시설 견학, 독서체험행사 등

프로그램: 재개관식, 새단장 <도서관 집들이> 주제의 독서체험행사,

공연 및 전시 ※ 자세한 사항은 추후 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문의: ☎245-5792

소양도서관 영화 상영 안내

일정: 소양도서관 시청각실(2층) / 15:00 이후

문의: ☎245-5145~5146

상영영화 소개:

박서방(김진규, 엄앵란)(23.11.4.) / 팔도 사나이(윤정희, 박노식)(23.11.11.)

몬스터 신부 :101번째 프로포즈 (23.11.18.) / 배드가이즈(23.11.25.)

모집**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홈페이지: www.cchildcare.or.kr 문의: ☎241-0756

프로그램 소개:

[부모교육] 애들아 학교가자

(관내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 / 11. 22. (수) 10:00~12:00 / 15명)

[부모자녀프로그램] 과일꽃향기

(2020~2021년생 자녀와 부모 / 11. 3. (금) 16:00~17:30 / 8가정)

[부모자녀프로그램] [뚝딱탐구]키즈북

(관내 2017~2018년생 자녀와 부모 / 11. 4. (토) 10:00~12:30 / 8명)

[부모자녀프로그램] 배려우산

(2017~2019년생 자녀와 부모 / 11. 11. (토) 10:00~11:30 / 8가정)

[부모자녀프로그램] [꼬물예술] 뮤지카이 클래식이랑 놀자

(관내 6개월~36개월 자녀와 부모 / 11. 11. (토) 10:00~12:20 / 10명)

건설훈련 - 타일(단일과정), 조적+방수(혼합과정) 무료 교육

교육기간: 2.3.~12.29.

교육시간: 월~금(9:00~15:30) / 1일 6시간 / 최대 3개월

교육과정: 타일 / 조적+방수(혼합과정)

교육장소: 강원인재개발원 (춘천시 춘천로 209 2층)

교육대상: 만 15세 이상인 실업자 및 재직자

훈련장려금 지급: 1일 1만6,000원 지급 ※ 해당자에 한함

신청방법: 전화 신청 또는 방문 신청 ☎242-3331

2024학년도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시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기간: 11.6.(월) 09:00 ~ 11.24.(금) 17:00

지원자격: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

모집전공(교원 및 일반인 지원 가능)

- 윤리교육 등 교과교육전공

- 아동문학교육, 스포츠지도전공 등

특전: 각종 민간자격증 취득 가능

문의: ☎260-6152~3



모집

2023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무료 참가자 모집

<연극으로 피어나는 왓지지컬 도서관>

신청자격: 초등1학년~초등3학년 : 9.24. ~ 11.26.(매주 일 진행)

오전반 10:00~13:00 / 오후반 14:00~17:00

초등4학년~초등6학년 : 9.23. ~ 11.25.까지(매주 토 진행)

오전반 10:00~13:00 / 오후반 14:00~17:00

장소: 작은 도서관 까루(후만로116번길 27)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참여 신청: 아트 컴퍼니 손 ☎010-5371-7106

11월 시민역사학교'히스토리야'

주최: (사)춘천의병마을 주관: 시민역사학교 운영위원회

문의: 263-8903 / 010-9287-8906

1. 역사강좌

일시: 11. 23.(목), 18:30 참가비: 없음

장소: 춘천시청 지하1층 민방위교육장

강의명: 한일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강사: 호사카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2. 현장답사

일정: 11. 10.(금) 출발시간 및 장소: 7:30, 호반체육관

답사지역: 서울, 경기권

주요답사지: 국립여성사박물관, 진관사, 행주산성, 서오릉

참가비: 2만원(식비,보험료 포함)

한림해피존지역아동센터 이용청소년 모집(무료)

프로그램: 야간보호, 귀가지도, 학습, 문화체험, 진로프로그램

청소년동아리, 스포츠교실, 학부모 원예교실 등

이용시간: 학기중(방과후~22:00), 방학중(10:00~22:00)

대상: 춘천 내 중학생

주소: 삭주로 35, 2층(한림대학교와 향교사이 봉의산DC마트 2층)

문의: ☎243-1813

2024학년도 한림성심대학교 신입생 모집(수시 2차)

모집일정: 11. 10(금) ~ 11. 24(금)

지원자격: 고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학력 포함)

모집학과

-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행정실무과,
(야간)ACE인재융합학부(디지털복지행정전공, 호텔관광전공)

- 보건의료계열: 의무행정과

- 관광계열: 바리스타제과제빵과, 호텔조리과

- IT계열: 디지털미디어콘텐츠과, 전기공학과

- 건설계열: 건축디자인과, 건설도시과

- 예체능계열: 시각영상디자인과, 영상미디어콘텐츠과, 레저스포츠과

장학혜택

- 25세 이상 정원 내 입학자 대상, 입학학기 수업료 50%,

2학년 2학기까지 수업료 30% 지급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이 완료된 자만 해당

- (야간)ACE인재융합학부(디지털복지행정전공, 호텔관광전공) 입
학생 입학학기 수업료 50%, 입학학기 제외 매 학기 수업료 30% 지급

- 특성화학과 입학생 1학년 전액 장학금 지급 예정

* 건설도시과, 건축디자인과, 디지털미디어콘텐츠과,

바리스타제과제빵과, 전기공학과, 호텔조리과

입학문의: ☎240-9006~7

2023 오늘은 여행자 살롱 상시 모집

모집대상: 춘천의 도심 속 여행을 하고자 하는 분

모집인원: 공간별 상이

진행일시: 11.18.(토)~11.19.(일) / 12.9.(토)~12.10.(일)

장소: 춘천시 내 12개소 공간 참가비용: 공간별 상이

신청방법: 춘천문화재단 <공지사항> 참조

문의: 259-5422

춘천시니어클럽 사무실 이전 안내

이전 주소: 퇴계로249, 4층

이전 날짜: 2023.11.6(월) 업무 개시

문의: 춘천시니어클럽 ☎256-3005

생활 정보

지금하면 10분 연말엔 2시간,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받으세요!

대상자: 면허증 하단 적성검사 (갱신) 기간 23.1.1. ~ 23.12.31.

준비서류:

기존면허증,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용사진 2매,
건강검진내역서 (1종 보통에 한함), 대형·특수는 별도 신체검사 필요
(병원 방문)

※ 참고: 춘천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없음'

수수료: 1만원 (2종) / 1만6,000원 (1종)

※ IC 면허증 발급시 5,000원 추가

신청방법:

[오프라인] 도로교통공단 춘천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경비교통과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문의: 도로교통공단 ☎1577-1120

행사

2023년도 KNU 인권주간 행사

일시: 11.7.(화)~11.8.(수) 11:00~18:00 장소: 백령광장 및 글로벌경영관

대상: 강원대학교 소속 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춘천시민

행사구성

1. 체험부스: 학생권익위원회 부스, 외부 기관 부스, 포토존
2. 인권영화제: 아이캔스피크(2017)
3. 특강: 취업준비를 위한 인권법(홍현기)

주최: 강원대학교 인권센터, 강원대학교 학생권익위원회

문의: KNU 인권센터 ☎250-7501~2

한림대학교 2023 생사인문주간 <상실, 슬픔을 치유하다>

일시: 11.1.(수) 14:00~18:00 대상: 일반시민

장소: 카페 '봉의산 가는길'(소양 1교 앞)

행사내용

1부 북 콘서트 - 사람은 살던대로 죽는다(이지원 박사) 14:00

2부 국화꽃 향기 애도카페 - 추억과 새로운 희망(정영미 소장) 16:00

음악공연(정현우 가수) 17:00

문의: 한림대학교 생사학 연구소 ☎248-3407

2023 제26회 천체 관측회 <별 헤는 밤>

행사기간: 11.17.(금), 18.(토) 18:30 ~ 22:00

내용: 아름다운 가을 밤하늘을 다양한 망원경으로 관측,
실내에서는 가을 하늘 별자리의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내는 VR 체험,
하늘을 수놓은 별을 더는 헤지 못 하게 된 이유를 알아보는 세미나,
우주와 관련한 실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

※ 11.18. 권석민 교수님(지적 외계 문명 탐사에 관한 주제) 강연 예정

참가대상: 누구나 무료로 참여

장소: 강원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육 4호관

문의: '강원대학교 과학교육학부 지구과학교육' 카카오톡 채널



제12회 뇌졸중의 날 건강강좌 무료 행사

일시: 11.24.(금) 13:00~15:30 대상: 누구나

장소: 강원대학교병원 암센터 6층 대강당

문의: 강원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센터 ☎258-2095

기타

신사우도서관 시집 <시를 꿈꾸다 3> 발간

장소: 신사우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인생시모작' 참가자들의 시 모음집

시집대여: 발간 후 시립공공도서관에서 이용자 대여 가능

(도서관 별 대여 가능일 상이)

문의: ☎245-5133



춘천 아코디언 동호회 언제나 응원합니다

봄내 소식지가 현관문 1층에 놓이자마자 집으로 들고 와서 한 문장 한 문장 아껴가며 읽어보았습니다. 10월호에서 인상깊었던 기사는 춘천 아코디언 동호회인데요. 아코디언을 들고 있는 동호회 회원분들의 얼굴에 웃음 꽃이 가득 핀 사진을 보면서 부모님 생각이났어요.

곧 은퇴하실 두 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취미입니다. 나와 맞는 취미를 만나 활기차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축복 같습니다.

- 한 상혁



춘천인인게 자랑스러워

춘천출신 변혜정 대표의 패션이야기, 박나라도 반한 옷을 만들었다니 참 자랑스럽네요. 춘천의 딸이 대한민국과 전세계를 누비는 모습, 찐 감동입니다. 거기에 '버티는 힘과 끈기를 춘천에서 배웠다'는 내용용은 제가 춘천인임을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이 문구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겠네요. 춘천의 모든 청소년들, 변대표 같은 프로의식과 생명력, 끈기를 갖고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춘천인 파이팅!

- 이 종 섭



봄내소식지는 변함없는 우리의 이웃

봄내 덕분에 춘천시민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먼 동네가 아닌 우리 동네 이웃들의 소식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우리 고장의 사진과 함께 이웃들의 이런저런 사연을 통해 보고 느끼고 공감하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언제나 반가운소식을 들고 찾아오는 봄내소식지가 있어서 오늘도 행복하네요.

- 전은미

은빛의 삶을 연주하다를 읽고

아코디언은 흔히 접할 수 없는 악기라고 생각했는데, 춘천에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동호회가 있다는 것을 봄내10월호를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기사에 실린 회원님들의 사진을 보면서 아! 나도 저분들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정 위문공연도 하시면서 음악과 함께 활기차게 사시는 모습이 멋집니다. 읽는 내내 참 행복했습니다. 은빛의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 백현주

봄내소식지는 춘천시민들의 거울

봄내소식지가 제20회 2023국제비즈니스대상 우수사외보 부문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받았네요. 봄내를 애독하면서 참 잘만드는 소식지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언젠가 봄내가 일 한번 크게 낼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춘천시민들의 따스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 이웃간의 정 넘치고 바르게 사는 시민사회 모습을 잘 담아주길 바랍니다. 봄내는 춘천시민들의 거울이고 사랑입니다!

- 유병화



393호 '옹달샘' 삼행시 당첨작

옹기종기 우리 가족 평상에 앉아 이야기꽃 피우면

달님은 차가운 밤 외로운 나머지,

샘을 내지요.

- 강효덕

옹달샘 물 한 잔에 담긴

달빛같이 포근한 춘천의 인심

샘물 한 모금에도 시원하게 차오르는 행복

- 지명숙

옹달샘 캠페인도 있고

달마다 봄내 소식지도 나오는 춘천

샘나지?

- 최재성

393호 독자 삼행시 당첨자

강현주, 강효덕, 김설휘, 김연옥, 박민지, 박준혁, 안민규, 이상은, 이수연, 이순일, 이영철, 이은옥, 이정희, 이주연, 이지희, 이하연, 임석기, 임소정, 장석근, 지명숙, 최재성

다음 독자 삼행시 주제는

맨발로 입니다.

이달의 춘천시 통계 (2023.9월 말 기준)



인구 291,285명(+97)



가구 135,537세대(+43)



출생아 120명



65세 이상 58,023명(+257)



자동차 149,668대(+215)

CARTOON REVIEW

만화로 보는 봄내 리뷰 강원애니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난호 봄내소식지를 보고 리뷰하는 코너입니다.

□ 3학년 박채원



독자 참여

원고와 사진을 **매달 10일까지** 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원고료를 드립니다. 지면 관계상 원고 내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편 24264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소통담당관
이메일 bomnae1993@gmail.com

• 봄내소식지 참여 안내

삼행시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1만원 이름, 핸드폰 번호(본인 명의) 반드시 기재
독자와함께, 봄내한컷 3만원, 우리가족 이야기 5만원
이름,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도로명주소 반드시 기재

• 봄내홈페이지(bomnae.chuncheon.go.kr) 이벤트 안내

봄내퀴즈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5,000원(정답자 중 100명 추첨)

버스타고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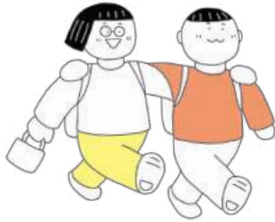
시내버스 부분 개편



(2023.11.1. 수)

통학급행 S버스

- ✓ 고등학생의 편리하고 신속한 통학
- ✓ 5-8개 정류장만 정차



노선	출발	출발지·주요경유지	학교
S-1	7:30	칠전대우-파크자이-온의롯데마트-에버빌3차-인성병원	춘고, 성수, 생명, 한샘
S-2	7:30	칠전대우-파크자이-온의금호1차-타워푸르지오-방통대-에버빌3차	춘여고, 강고, 한샘
S-3	7:20	호반베르디움-투탑시티-퇴계한주-한솔시티-남춘천여중-명동	춘고, 성수, 유봉
S-4	7:30	호반베르디움-투탑시티-퇴계한주-한솔시티-남춘천여중-신북	생명, 한샘
S-5	7:40	거두초록지붕-교육대학교-석사대우-포스코더샵-소방서	생명, 한샘
S-6	7:30	한솔시티-퇴계금호-뜨란채-퇴계주공4차-롯데마트석사	춘여고, 강고, 한샘
S-7	7:30	한진한성-퇴계우성-하이츠2차-휴먼타운-거두주공	춘여고, 강고, 한샘
S-8	7:20	에버빌1차-퇴계주공3·4차-유승한내들-모아엘가-춘천중-명동	춘고, 성수, 유봉
S-9	7:30	에버빌1차-하이츠1차-청구-진흥-후평현대3차-만천LH	춘여고, 강고, 한샘
S-10	7:30	천년나무-뉴시티코아루-우두택지-롯데인벤스-한림대학교	생명, 춘고, 성수, 유봉
S-11	7:20	천년나무-뉴시티코아루-우두택지-롯데인벤스-후평현대3차	생명, 춘여고, 강고
S-12	7:20	장학LH1차-아이파크-만천LH-금호빌리지-초록지붕8차	유봉, 춘고, 성수

대학병원노선

- ✓ 읍면 마을에서 강원대·한림대병원까지
- ✓ 1일 2회 운행
- ✓ 전통시장 경유



노선	출발지·출발시간	주요경유지	후평동출발
901번	동산면 조양·군자리 7:30	원창리·중앙·동부시장·강원대·후평시장·한림대	11:35
902번	남면 가정리 7:20	남면 행복센터·강춘역·풍물·중앙·동부시장·강원대·후평시장·한림대	12:20
903번	남면 한덕·남산 산수리 7:40	광판리·김유정역·풍물·중앙·동부시장·강원대·후평시장·한림대	11:40
904번	남산면 백양·서천리 7:50	안보리입구·당림리·풍물·중앙·동부시장·강원대·후평시장·한림대	12:30
905번	사북면 오탄리 7:30	지촌리·사북면·번개·서부시장·인성병원·동부시장·강원대·후평시장·한림대	11:40
906번	사북면 고성·고탄리 7:50	용산리·이지더원·번개·서부시장·인성병원·동부시장·강원대·후평시장·한림대	11:50

시내구간 취약지역 일부 노선 조정

강원대동문 경유

신설 17번

- 퇴계·후평지역간 연결노선
- 남춘천역-시외버스터미널
- -한솔시티-CGV-강원대동문
- -강원대병원-후평동

관광·주거 연계

통합 7·7-1·7-2번

- 구곡폭포 노선 세분화
- 7 강원대후문 7-1 강원대병원
- 7-2 한림대·삼악산케이블카
- 연장 16번 레고랜드·칠전동

우두택지

조정 100·100-1번

- 우두동 경유
- 소양강치녀상·소양2교
- -도 교육청·소양3교·한림성심대
- 경유 11번 이지더원·천년나무

기타 조정

증회 4번 (한솔시티)

- 시간 변경 200·200-1·300번
- 3·9·12·13번
- 노선 8·8-1·7-2번
- 바이오진흥원 경유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교통포털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chuncheon.go.kr/traffic



버스개편 안내 콜센터 269-1314~5